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Study on Regional Education Gap in Incheon
through balanced-education development index

배 은 주 · 허 효 선

연구진

연구책임

- 배은주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 허효선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근 송도, 청라 등 신도시의 개발로 이들 지역에 원도심 소재의 학교들이 이전하고 각종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어,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지역주민들의 박탈감 증대가 심각한 수준임.
- 이러한 교육격차는 지역간 사회경제적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자치구별로 초·중·고의 교육격차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보고자 함.
 - 기본적으로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간 사회경제적 배경을 먼저 비교 분석함.
 - 교육지표는 교육의 투입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활용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교육균형발전지수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함.
- 교육격차를 지수라는 실증적 자료로 드러냄으로써 각 지표의 지수비교를 통해 인천시 자치구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임.

2. 연구범위와 방법

- 인천광역시 내 군 지역인 강화, 옹진을 제외한 자치구들의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은 제외하였음.
- 자료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고, 자치구별로 비교 가능한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을 조사하고, 자치구 내의 초·중·일반고 학교급별로 수집가능한 교육

지표 통계자료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여 영역별로 비교하였음.

- 교육의 결과 중 학업성취도 비교는 2012년에 수행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미달자 비율만 활용하고, 이외에 고교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미진학률 등을 비교 분석하였음.

○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을 위해 활용한 지수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타당성(relevance), 신뢰성(rel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가용성(availability)으로 설정하였음.
- 이 4가지 기준에 따라 타당하고 활용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한 결과 4개의 대 영역(Index)과 12가지 소 영역(Sub-Index)의 총 29개 지표들(Indicators)을 선정하였음.
-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방식은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들의 표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따라 지수화를 시도하였음. 경제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어 표준점수의 합산으로 지수화하는 다음 방식을 활용함($Z_{i,A}$ 는 지표 i 의 지자체 A 지역의 표준점수임).

$$\text{지자체 } A \text{의 교육균형발전지수} = \sum_i Z_{i,A}$$

3. 영역별 교육격차 실태

○ 사회·경제적 배경

- 2014년 기준 재정·경제 영역은 중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연수구와 서구가 상위권이었으며, 동구, 남구, 계양구가 하위권 수준이었음.
- 인구 영역에서는 부평구 지역이 가장 열악하였고,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사회·문화 시설마다 지역 간 차이가 있었으나 남구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투입 영역

- 2014년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투입 영역에서 동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중구가 가장 열악하였으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2.75였음.

- 중학교의 경우 투입 영역에서 역시 동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서구가 가장 열악하였으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4.19에 이룸.
-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투입 영역에서 역시 동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서구가 가장 열악하였으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10.25였음.
- 즉, 투입 영역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투입 영역의 지수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은 동구이고, 가장 열악한 지역은 서구이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10.25로 나타났음.

○ 교육과정 영역

- 2014년 기준 과정 영역에서는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적응 지표만 활용하였는데, 남구가 가장 양호하고 중구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역간 지수 격차는 3.25임.

○ 교육결과 영역

- 2014년 기준 중학교의 경우 결과 영역에서 연수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서구가 가장 열악하였으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2.71임.
-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결과 영역에서 남동구가 가장 양호하였고, 중구가 가장 열악하였으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7.22로 나타났음.
- 결과 영역의 지수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은 남동구이고 가장 열악한 지역은 중구이며, 지역간 지수 격차는 8.56임.

○ 종합해 보면, 투입 영역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여건의 격차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음은 영역별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단순화하여 요약한 것임.

<표 1> 영역별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요약

구분	영역	가장 양호한 지역	가장 열악한 지역	지역간 지수 격차
교육의 투입 영역		동구	서구	10.25
초등학교	투입 종합	동구	중구	2.75
	교육 환경	동구	연수구	1.27
	인적 자원1	계양구	동구	1.22
	인적 자원2	부평구	중구	1.37
	시설 자원	동구	중구	2.05
	학교 재정	동구	계양구	2.69
중학교	투입 종합	동구	서구	4.19
	교육 환경	동구	연수구	2.98
	인적 자원1	남동구	동구	1.25
	인적 자원2	남구	중구	2.21
	시설 자원	중구	동구	3.33
	학교 재정	동구	부평구	4.46
고등학교	투입 종합	동구	서구	10.25
	교육 환경	동구	서구	4.3
	인적 자원1	동구	계양구	1.56
	인적 자원2	동구	남동구	1.54
	시설 자원	중·동·연수·남 동·계양구	동구	0.76
	학교 재정	동구	중구	3.08
교육의 과정 영역		남구	중구	3.25
고등학교	과정 종합	남구	중구	3.25
	학교 적응	남구	중구	3.25
교육의 결과 영역		남동구	중구	8.56
중학교	결과 종합	연수구	서구	2.71
	학업 성취	연수구	서구	2.71
고등학교	결과 종합	남동구	중구	7.22
	학업 성취	연수구	중구	2.34
	학업 중단	남구	중구	1.2
	대학진학 종합	계양구	중구	1.96
	전문대 진학	동구	연수구	1.2
	4년제대학 진학	남동구	중구	1.67
취업 및 미진학	계양구	중구	1.81	

4. 학교급별 교육격차 실태

○ 초등학교

- 초등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2.75로, 이는 모두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격차임.
-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1.27,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2.59,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2.05,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2.69로 나타나, 초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영역은 학교재정과 인적자원임.

○ 중학교

- 중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4.77로,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교육격차 지수값은 4.19이고,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2.71임.
-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2.98,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3.46,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3.33,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4.46로 나타나, 중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투입 영역의 지표도 역시 학교재정이며, 다음으로 인적자원임.
-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 학업성취지수의 격차는 2.71로 나타나 투입 영역의 어느 지수의 격차보다 오히려 적은 편으로 나타났음.

○ 고등학교

- 고등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10.78로 격차가 가장 크며,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교육격차 지수값은 10.25이고, 교육의 과정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3.25,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7.22임.
-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4.3,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3.1,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0.76,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3.08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투입 영역의 지표는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이며, 다음으로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임.
- 교육의 과정 영역에서의 학교적응 격차 지수값은 3.25임.

-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 학업성취지수의 격차는 2.34이고, 학업중단지수의 격차는 1.2, 대학진학종합지수는 1.96,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는 2.87, 취업 및 미진학지수는 1.81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결과 영역의 지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이고, 다음이 학업성취지수임.

5. 지역별 교육격차 실태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급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동구, 가장 열악한 지역은 중구이며, 중학교급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동구, 가장 열악한 지역은 서구이고, 일반고등학교급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동구, 가장 열악한 지역은 중구로 나타났음.
- 동구의 경우 2014년 기준 교육경비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해여서 투입 영역의 지표들이 양호하여 전체적인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2015년부터는 교육경비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동구의 교육균형발전지수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4년 기준 동구의 지수가 높은 것은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함.
- 자치구별로 교육격차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지역별 교육격차 실태 종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매우 열악	양호	매우 열악
	투입 종합	매우 열악	양호	양호
	과정 종합	-	-	매우 열악
	결과 종합	-	보통	매우 열악
동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투입 종합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과정 종합	-	-	보통
	결과 종합	-	보통	열악
남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보통	보통	양호

	투입 종합	보통	양호	양호
	과정 종합	-	-	매우 양호
	결과 종합	-	열악	양호
연수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열악	양호	열악
	투입 종합	열악	열악	보통
	과정 종합	-	-	열악
	결과 종합	-	매우 양호	열악
남평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보통	열악	보통
	투입 종합	보통	열악	열악
	과정 종합	-	-	열악
	결과 종합	-	양호	매우 양호
부평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양호	보통	양호
	투입 종합	양호	보통	보통
	과정 종합	-	-	양호
	결과 종합	-	양호	보통
계양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양호	열악	보통
	투입 종합	양호	보통	열악
	과정 종합	-	-	양호
	결과 종합	-	열악	양호
서구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열악	매우 열악	열악
	투입 종합	열악	매우 열악	매우 열악
	과정 종합	-	-	보통
	결과 종합	-	매우 열악	보통

6.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 교육격차 실태의 문제점

- 교육 투입 영역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특히 고등학교급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결과 영역보다 투입 영역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애초 모든 학교에 균형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됨.
-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는 학교재정 측면과 인적자원 측면의 지역간

격차가 크고, 일반고교급에서는 학생수 및 교사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과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 하지만, 학교재정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교육경비와 교육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2014학년도의 특수한 실정 때문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학교재정의 경우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별 특성에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굳이 재정의 균형을 제언하지 않기로 함.

○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제언

- 사회문화적 배경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서구와 남동구는 도서관 확충에, 부평구와 연수구는 문화시설 확충에, 동구와 남동구는 체육시설 확충에 신경 써야 할 것임.
- 교육환경 영역에서 연수구와 서구는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과밀한 편이며, 남동구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과밀한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신설 혹은 학급증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급 및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수업 관련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초·중학교급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동구와 남구, 일반고교급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계양구 등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복지 관련 인적자원 영역에서 중구 지역의 경우 지역환경도 그리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기에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연수구의 중학교급과 남동구의 고등학교급에서도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의 배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시설자원 영역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 시설인 체육시설, 급식실, 보건실 등은 지역간 차이가 없도록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구와 남동구는 초등학교급에서, 남구와 서구는 고등학교급에서 필수 교육인프라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부평구는 모든 학교급에서 이러한 필수 시설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학교적응 및 학업중단 영역에서는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즉, 개인 맞춤형 상담체계, 맞춤형 진로지도, 친밀한 사제관계 및 교우관계 조성, 대안교실이나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안내 등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업성취 영역에서는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초학력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중학교급의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남구, 계양구, 서구 지역과 고등학교급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중구, 계양구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교육격차와 이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도출

대영역 (Index)	소영역 (Sub-Index)	주요 교육격차	정책 도출	관련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문화	사회·문화 시설 격차	사회·문화 시설 확충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교육의 투입 영역	교육 환경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격차	적정 규모 학급 및 학교 운영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인적 자원	수업 관련 인적자원 격차	기간제교사 비율 축소 노력	동구, 남구, 계양구
		교육복지 관련 인적자원 격차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확보	중구, 연수구, 남동구
시설 자원	학교시설 격차	필수 교육인프라 구축	중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교육의 과정 및 결과 영역	학교 적응	학업부적응과 학업중단 학생 비율 격차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학업 중단			
교육의 결과 영역	학업 성취	학업성취(기초학력) 격차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책무성 제고	중구, 남구, 계양구, 서구

- 목 차 -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진행 흐름도	6
제3절 교육격차 및 지수 개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교육격차 요인 및 교육균형발전지수	13
제1절 교육격차 개념 및 관련 요인	15
1. 교육격차 개념	15
2. 교육격차 관련 요인	16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와 산출방식	19
1.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	19
2.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방식	22
제3장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29
제1절 교육균형발전 지표 선정	31
1. 교육균형발전 지표 항목	31
2. 교육균형발전 지표 선정	36
3. 교육균형발전지수 지표(안)	41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에 의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43
1. 사회·경제적 배경	43
2. 교육의 투입 영역	51
3. 교육의 과정 영역	62

4. 교육의 결과 영역	63
5.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69
제4장 요약 및 제언	75
제1절 요약 및 논의	77
1. 영역별 교육격차	77
2. 학교급별 교육격차	81
3. 지역별 교육격차	85
제2절 정책 제언과 연구 한계	102
1.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103
2. 지수 연구의 한계	106
(참고문헌)	109

- 표 목 차 -

<표 2-1> 부르코버의 학교풍토	18
<표 2-2> 인천시 경제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25
<표 2-3> 인천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26
<표 2-4> 인천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학교	26
<표 2-5> 인천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일반고등학교	27
<표 3-1> 교육격차 지표 항목 예시	32
<표 3-2> 선행연구의 교육격차 지표 항목	34
<표 3-3> 교육균형발전지수 구성 지표 검토	38
<표 3-4> 인천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
<표 3-5> 인천시 자치구별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수 및 비율	45
<표 3-6> 인천시 자치구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46
<표 3-7> 인천시 자치구별 학령기 장애인수 및 비율	47
<표 3-8> 인천시 자치구별 사회문화 시설 현황	49
<표 4-1>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요약)	80
<표 4-2> 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87
<표 4-3> 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89
<표 4-4> 남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91
<표 4-5> 연수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93
<표 4-6> 남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95
<표 4-7> 부평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97
<표 4-8> 계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99
<표 4-9> 서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101
<표 4-10>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도출	102

- 그림 목 차 -

<그림 3-1> 교육균형발전지수 체계	41
<그림 3-2>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44
<그림 3-3> 자치구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44
<그림 3-4> 학교급별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6
<그림 3-5> 학교급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47
<그림 3-6> 학교급별 학령기 장애인 비율	48
<그림 3-7>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8
<그림 3-8>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48
<그림 3-9> 학령기 장애인 비율	48
<그림 3-10> 인구 만 명당 학원 수	50
<그림 3-11> 인구 십만 명당 도서관 수	50
<그림 3-12> 인구 십만 명당 문화시설 수	50
<그림 3-13> 인구 만 명당 체육시설 수	50
<그림 3-14> 초등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51
<그림 3-15> 중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52
<그림 3-16> 고등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52
<그림 3-17> 초등학교 교육환경지수	53
<그림 3-18> 중학교 교육환경지수	54
<그림 3-19> 고등학교 교육환경지수	54
<그림 3-20> 초등학교 인적자원지수 1,2	56
<그림 3-21> 중학교 인적자원지수 1,2	57
<그림 3-22> 고등학교 인적자원지수 1,2	58
<그림 3-23> 초등학교 시설자원지수	59
<그림 3-24> 중학교 시설자원지수	59
<그림 3-25> 고등학교 시설자원지수	60

<그림 3-26> 초등학교 학교재정지수	61
<그림 3-27> 중학교 학교재정지수	61
<그림 3-28> 고등학교 학교재정지수	62
<그림 3-29> 고등학교 학교적응지수	63
<그림 3-30> 중학교 결과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64
<그림 3-31> 고등학교 결과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64
<그림 3-32> 중학교 학업성취지수	65
<그림 3-33> 고등학교 학업성취지수	66
<그림 3-34> 고등학교 학업중단지수	66
<그림 3-35> 고등학교 대학진학종합지수	67
<그림 3-36> 고등학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	67
<그림 3-37> 고등학교 취업 및 미진학지수	68
<그림 3-38>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69
<그림 3-39> 교육균형발전지수(투입 영역)	70
<그림 3-40> 교육균형발전지수(과정영역)	71
<그림 3-41> 교육균형발전지수(결과영역)	71
<그림 3-42> 교육균형발전지수(초등학교)	72
<그림 3-43> 교육균형발전지수(중학교)	73
<그림 3-44> 교육균형발전지수(고등학교)	73
<그림 4-1> 초·중·고 투입영역 지수격차	78
<그림 4-2> 초등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81
<그림 4-3> 중학교 영역별 지수격차	82
<그림 4-4> 중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83
<그림 4-5> 고등학교 영역별 지수격차	84
<그림 4-6> 고등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85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Study on Regional Education Gap in Incheon
through balanced-education development index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절 교육격차 및 지수 개발 관련 주요 선행
연구 검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가장 공정한 계층이동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지만,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계층별로 주거지역이 특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도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지역간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간 균형적 발전과 더불어 교육의 균형적 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근 송도, 청라 등 신도시의 개발로 이들 지역에 원도심 소재의 학교들이 이전하고 각종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이들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처지이다. 신도시로의 인구밀집 현상으로 인해 학교신설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 지역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지역에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박탈감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학교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유명 기업이 운영하는 자율형사립고 설치, 한국예술영재학교 같은 특수학교 설치, 글로벌캠퍼스 운영 등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지역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적 발전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초·중·고의 교육격차 실태를 면밀히 진단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간

사회경제적 배경을 먼저 비교 분석한다. 교육지표는 교육의 투입단계, 과정단계, 결과단계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활용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교육균형발전지수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한다. 교육격차를 지수라는 실증적 자료로 드러냄으로써 각 지표의 지수비교를 통해 인천시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내 군 지역인 강화, 옹진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초, 중, 일반고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제외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4년이고, 2014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전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3) 내용상 범위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 가능한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을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 내의 초·중·고 학교급별로 수집가능한 통계자료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 투입 변인, 과정 변인, 결과 변인별로 비교하였다. 교육의 결과 중 학업성취도 비교는 2012년에 수행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미달자 비율만 활용하고, 이외에 고교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미진학률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먼저 교육격차의 개념과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이동의 요인들을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통해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지수(교육격차지수)의 개념과 산출을 위하여 교육지표의 선정, 지수 산출방식 등을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지수 산출방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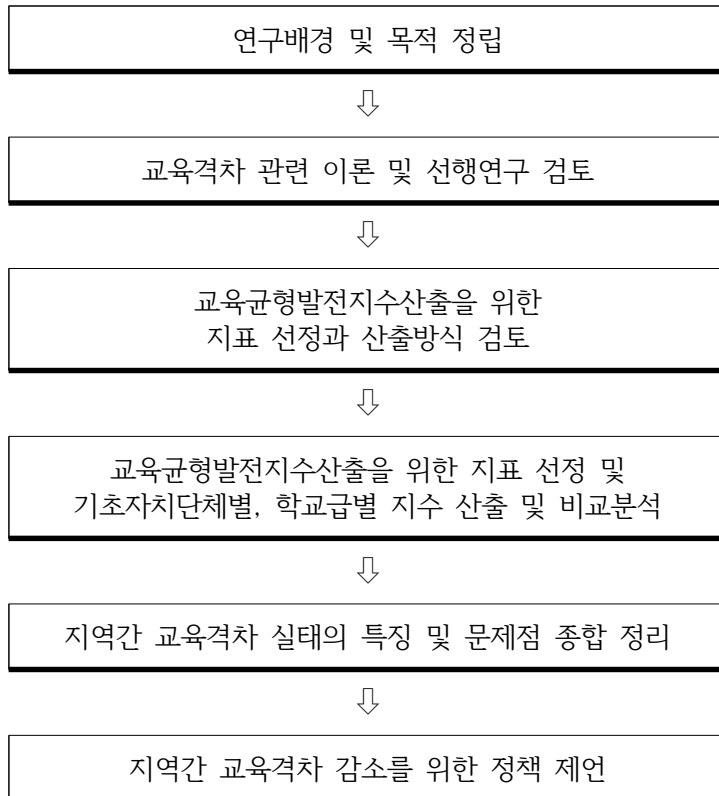
2)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분석

학교알리미 사이트 및 인천교육통계, 통계청 자료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격차지표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초·중·고의 교육 투입, 교육 과정, 교육 결과 면에서의 교육격차지표 및 교육균형발전지수를 통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진행에 참조하였다.

3. 연구 진행 흐름도



제3절 교육격차 및 지수 개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

과거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규모로 도농 간의 격차나 학교급별 격차에 주목한 것들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간의 격차에 주목한 것들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강영혜 외(2004), 고희일 외(2005), 성열관 외(2005), 류방란 외(2006)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김영철(2003), 하봉운(2004), 박종필 외(2008), 서지영(2010), 배은주(2012) 등이 있다.

강영혜 외(2004)의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는 2003년 일반계고교 학력평가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배경변인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통해 도시규모별, 설립주체별 고등학교 교육격차를 분석하였는데, 교육투입 측면에서 도농 간, 도시지역 간 상당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가정배경의 영향으로 더 심화되며, 교육과정 측면에서 학교간·지역간 차이가 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교육결과 측면에서 지역간·설립주체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학생의 가정경제적 배경, 학생의 개인적 변인, 학교수준의 여러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드러내었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가정과 지역사회 배경의 불리함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의 대물림 방지, 농촌을 위한 종합적 방안수립, 교육불평등 문제 해결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고형일 외(2005)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는 교육격차 분석모형에 따라 교육기회, 과정, 산출 변인별로 사회계층 및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고교와 대학교 취학기회에서 계층 간·지역 간 격차가 상존하고 있고, 계층 간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수준에 격차가 있으며, 계층 간 학교시설 격차, 교원격차, 학업성취도 격차,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의 해소 정책 방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여건 개선, 기초학력 보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 교사의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열관 외(2005)의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은 서울시 교육

격차 사례를 통해 지역 간 교육여건(시설, 교사),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소비자들이 투입하는 사교육비 면에서의 격차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학업성취부진학생판별 및 지원과 교육기관의 지역균형배치 및 지역 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지역 간 교원 격차 해소, 그리고 지자체 및 자치구의 교육행정 지원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하며, 교육격차해소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류방란 외(2006)의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연구는 부모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생과 학교의 배경, 학교경험수준의 격차를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교육적 지원, 학생의 학교 경험 수준, 학업성취 수준의 계층 간·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교육격차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고 일부 양극화의 모습도 보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가정배경 수준은 학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 경험의 수준도 독립적으로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위 계층 아동에게 더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회불평등의 재생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에게는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일과 병행되어야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김영철(2003)은 서울시를, 하봉운(2004)은 경기도를, 박종필 외(2008)는 제주도를, 서지영(2010)은 대구를, 배은주(2012)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도 내의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김영철(2003)의 경우 학교 교육시설 격차와 학력격차, 교육경비지원 격차가 심각하며, 이는 특히 강남과 강북 학군 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간 부의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하봉운(2004)의 경우 도농 간의 교육기회 격차와 교원격차, 교육시설 격차가 심각히 나타나고 더불어 교육재정 지원격차도 심각히 나타나, 지역 간 교육여건 균등화와 교육취약지역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교육정책 추진과 구체적 해소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박종필 외(2008)의 경우 지역 간 학업성취에 심각한 격차가 있으며, 학교 교육환경과 사교육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학생 이동 변인도

교육격차의 원인으로 분석되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읍면 지역에 중점을 둔 해소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대구를 대상으로 한 서지영(2010)의 경우, 구군별 교육격차를 배경, 투입, 산출 영역에서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분석하여 교육격차 실태를 양호한 지역(수성구와 달서구), 미흡한 지역(중구, 동구, 북구, 남구), 열악한 지역(서구, 달성군)으로 구분됨을 보여주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와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 우선 순위, 사업방향 및 영역, 지원방법, 프로그램(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인천을 대상으로 한 배은주(2012)의 경우, 국가수준학업성취도의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의 결과 측면에서의 격차를 조사한 것으로, 초, 중, 일반계고 급에서는 신도심 지역이, 특성화고 급에서는 원도심 지역이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크며, 여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학교여건, 학생이동 등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역여건균형정책, 교육여건의 균등화, 보상적 교육정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임선희·김경희(2006)는 자치구가 아닌 동서 지역별로 대전의 교육격차를 분석하였는데, 생활실태 및 교육실태 면에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있는 학교의 재배치, 교육부적응 및 교육소의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및 교육복지정책의 하향식 결정 과정을 통한 자율과 참여의 확보,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저소득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 지자체·자치구 교육개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우명숙(2013) 또한 2009~2012년 간 서울시 중학교 대상으로 자치자치구별 교육격차를 분석하여 강남과 강북의 지역차이와 그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교육투입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서울시 전체 중학교간 차이는 크게 나타났고, 재정적 중립성은 침해되지 않았으며, 교육의 결과에서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학교별·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히 불리한 지역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하

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와 지역에 대해 교육의 투입과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그대로 비교하여 분석한 것인 반면에, 지표들을 지수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드러낸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류방란 외(2006)의 연구는 교육격차를 지수화하여 보여주는 첫 시도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격차에 관한 지수화를 시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러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해 본 결과, 교육균형발전지수 상위 지역은 주로 수도권, 하위지역은 지방 군구에 밀집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격차의 지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정련화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경제수준, 아동청소년의 빈곤율, 가정해체비율을 고려하여 교육 투자를 결정해야 하며, 교육균형발전지표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책활용에 신중해야 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개입 영역과 지자체 영역에 대한 합의를 찾아야 하며,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교육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와 자료공유 체제를 갖추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창규·김영노(2012)는 교육균형발전지수를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감소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대전의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여 지역간·소득계층 간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개선하고 자료의 DB화를 통해 이후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007년도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2012년 대전의 교육격차가 별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이 동구, 대덕구, 중구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환경지표가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재정 면에서는 중구가, 교육과정과 결과 면에서는 동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표별 자료를 DB화해야 하고, 교육비 배분을 지표별 취약 지점에 집중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교육격차해소와 관련된 기관의 책무성 제고와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이해가 수반되도록 홍보와 설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추경모(2012)는 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전국 232개 시자치자치구별 중학교 교육격차를 지표로 수치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교육현황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교육의 지역적 차이를 밝히고, 교육격차완화, 교육균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국 232개 시군구를 4개의 군집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배경과 진학 및 학업성취 영역이 높은 군집, 학교여건과 진학 및 학업성취 영역이 높은 군집, 보통군집, 교육배경과 진학 및 학업성취 영역이 낮은 군집으로 구분되었는데, 종합지표값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강원, 충청, 경북 등의 북동부 지역이 높고, 호남, 경남 등의 남서쪽 지역이 낮게 나타났다. 대도시 내에서의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지역은 하위지역 간의 편차가 가장 컸다. 이에 따라 대도시 차원에서는 도시 내부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남서 지역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교육지표별로 지수화를 시도하여 지수 비교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드러낸 것으로, 지표의 원자료로 비교하는 연구들보다 보다 엄밀한 통계적 분석으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격차의 통계적 의의를 확보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지역간 격차 영역과 격차 정도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에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격차를 지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인천광역시에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필요한 지원 영역을 파악하게 된다면, 인천광역시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Study on Regional Education Gap in Incheon
through balanced-education development index

제2장

교육격차 요인 및 교육 균형발전지수

제1절 교육격차 개념 및 관련 요인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와 산출방식

제2장 교육격차 요인 및 교육균형발전지수

제1절 교육격차 개념 및 관련 요인

1. 교육격차 개념

1) 교육격차의 유사 개념

교육격차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들로 ‘교육불평등’과 ‘학력격차’를 들 수 있다. 김병성(2003)은 이들을 엄밀히 구분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교육불평등’은 교육격차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그 주안점은 교육에 대한 이념적·사상적, 그리고 더 나아가 상징적 관점을 강조하는 개념인 반면에, ‘학력격차’는 교육격차의 미시적 관점으로 수업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양적·질적 변화에서 제기되는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학력을 학업성취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불평등과 학력격차의 개념과는 달리 ‘교육격차’는 현상적·실제적·가시적 측면에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수용하는데, 교육격차는 사회 및 학교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아울러 기능적 측면에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으로, 투입요건으로서의 기회균등의 격차, 교육실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는 교육효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거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과정별 교육격차 개념

교육격차를 교육의 과정별로 세분화하면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산출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하게 된다(김영철, 2003). 교육격차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기회와 교육여건을 포괄하여 투입 단계에서의 교육투입의 격차, 교육 실천 활동

에서 야기되는 교육과정에서의 격차, 그리고 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교육효과의 격차 등을 포함하게 된다. 교육투입 단계에서의 격차는 인적·물적·재정적 자원과 학교장의 지도성, 학교풍토 등과 같은 학교 특성에서의 차이를 말하고, 교육과정 단계에서의 격차는 교육과정 운영, 수업의 능률, 학습 분위기 등에서의 차이를 말하며, 교육 산출 단계에서의 격차는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변화와 이로 인한 결과 등에서의 차이를 말한다.

2. 교육격차 관련 요인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적 요인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학생의 타고난 개인적 능력, 지능, 성취동기, 집중력의 정도 등 개인적 차원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은 선천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결합되어 개인을 형성하고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학교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 사회적 요인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크게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환경의 차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여건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학교의 환경과 지역사회의 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다.

(1)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콜맨 외(Colman et al., 1966)와 젠크스 외(Jencks et al., 1972)의

연구인데, 미국의 학교교육과 평등의 관계를 분석한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간 학업성취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학생의 가정배경으로 지목된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지적된 것은 학생의 포부수준, 가정의 문화실조, 가정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취향 등의 문화적 요인이다(Bernstein, 1973; Bourdieu, 1973; DiMaggio & Mohr, 1985; 김경근, 1999, 2000). 여기서 문화실조론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의 문화적 결핍을 지적하지만, 이때의 문화는 상류층의 고급문화만을 의미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고 후속 교육학자들에 의해 비판된 바 있다(배은주, 2012).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근 부모의 관심과 사교육비 지출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나 교육적 지원 활동 같은 부모의 실제적 활동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류방란·김성식, 2006; 변수용·김경근, 2006). 부모의 실제적인 교육적 지원 활동은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강영혜 외, 2004; 양정호, 2006),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격차는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부모들은 좋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동해 가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사교육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는 과정적 측면 또한 가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의 교육환경 차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교육과정사회학 분야에서 제기되었는데, 문화재생산론과 교육과정사회학의 연구에서는 학교 자체가 문화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상류층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하류층 아동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하류층 아동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어 학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루터외(Rutter et al., 1979)의 연구는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학업성취도의 차이

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사의 기대 효과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데, 교사들은 하류층이나 소수 민족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낮은 기대를 가지며 반대로 상류층 아동들에게는 높은 기대를 보이는데, 낮은 기대는 하류층이나 소수 민족 집단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되어 학교교육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기대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기대 등 학교 구성원의 기대와 상호인식을 포괄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브루코버(Brookover, 1979)는 ‘학교풍토’로 개념화 하고, 이것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교풍토는 학생풍토, 교사풍토, 교장풍토로 이루어지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부르크버의 학교풍토

학생풍토	교사풍토	교장풍토
학구적 무력감	학생의 대학진학능력에 대한 평가, 기대, 교육의 질	양질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기대에 대한 지각
장래에 대한 평가 및 기대	학생의 고교 졸업에 대한 현재의 기대와 평가	학력증진을 위한 노력
학생이 지각한 현재의 평가 및 기대	학력증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기대 일치도	현재 학교의 질적 상태에 대한 학부모와 교장의 평가
교사의 기대 압력과 규범에 대한 지각	교장의 기대에 대한 교사의 지각	학생에 대한 현재의 기대 및 지각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학구적 규범	학구적 무력감	-

자료: Brookover, W. et al.(1979)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환경의 차이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는데(류방란·김성식, 2006), 학교의 여건 차이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 동문과 지역 여건 차이의 영향도 받는다. 이러한 학교 여건의 차이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의 여건 차이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교육투자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학교에 투자되는 경비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는 새롭게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영철(2003)과 하봉운(200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광역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경비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각 학교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 간 격차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이동요인

사회적 요인 중에서 학생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 요인은 비교적 정적인 요인이라면, 이동요인은 보다 동적인 요인으로서 학생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지역 간에 나타나게 되는 교육격차 유발 요인이다.

오성배(2004), 강태중(2007), 박종필 외(2008)의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의 이동은 지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남아 있는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저해하거나 남아 있는 학생들의 이동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의 유발 요인으로 새롭게 지목되고 있다. 최근 인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학교 및 학생 이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와 산출방식

1.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

1) 지수의 의미와 한계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설명하기에 앞서, 지수(index)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광현(2007: 2)에 따르면,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지수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값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에서 사용하는 GDP 환산지수나 구매력지수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지수들은 어느 기준 시점이나 기준 국가(혹은 지역)를 중심으로 비교가능한 값으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다른 한편 지수는 여러 지표 항목들을 합산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이 그러한 예로서 여러 지표 항목들을 종합하여 표준화한 대표적인 지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수의 기능은 전자의 지수들처럼 현 상황의 수준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후자의 총괄지수처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수만으로는 전반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제공받기 어렵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는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 항목들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지수와는 달리, 지표(indicator)는 개별적인 항목의 단순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술적 측면에서 또 양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이광현, 2007: 2). 하지만,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지표 항목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상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값으로 표준화한 것이 하나의 지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수가 나타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한계 또한 잘 이해하는 것이 지수의 해석에서 중요하다.

2)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의미와 기능

교육균형발전지수란 교육격차지수를 말한다. 교육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을 발견하여 불리함을 보완함으로써 균형적인 교육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육개발원(2006: 141)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다소 부정적인 어감의 교육격차지수 대신 긍정적인 의미의 교육균형발전지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 교육실태를 탈이념적 및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교육균형발전지수는 전국적인 수준의 총괄적 정보보다는 지

역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지역별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하지만 교육균형발전지수의 한계도 일반적인 지수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어느 지표를 개선해야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지수의 값 차이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값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이광현, 2007: 3), 여타의 지수와 마찬가지로이다.

여러 지표 항목들을 종합한 지수가 적절한 신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지표들을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하고,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형태의 값으로 나타내야 한다(이광현, 2007: 3). 비교가능한 값을 산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표준화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표준화를 통해 지표값을 단순화시켜 비교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격차를 결정하는 지표 영역으로는,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크게 교육의 배경, 투입, 과정, 산출 등의 영역이 있다.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드러내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역은 정부나 지자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표들인 인구, 재정 및 경제, 문화환경 등으로 구성된 반면, 투입 영역은 교육청의 개입으로 통제가 가능한 교사 지표, 학교 재정 등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김창규·김영노, 2012). 또한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과 그 학업성취, 대학진학을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의 결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투입 영역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항목들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도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요컨대 교육의 배경-투입-과정-산출과 관련된 지표들을 지수화 함으로써 어느 지역이 특정 영역 및 지표에서 낙후되어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지역에 혹은 어느 영역에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척도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방식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균형발전지수는 류방란 외(2006)에서 개발한 지수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격차의 실태를 점검하고 낙후지역을 살펴 적절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발한 지수이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류방란 외(2006)가 제안한 방식을 따라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도출하였다. 이 지수는 지역 낙후도를 지수화하는 방식을 검토한 후 개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표값들을 표준화하여 활용하는 것이다.¹⁾

1) 지표 선정 방법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들로 류방란 외(2006: 150-152)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의한 지표 선정 방식이 있다. 교육 전반에 관한 식견과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표 선정 이후 지표의 가중치 부여량은 전문가들의 식견에 맡기게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소의 개입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둘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육지표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교육낙후도 혹은 교육격차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는 관점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인들과 경제적 원인과 관련되는 교육여건 등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셋째, 역시 통계학적 방법으로서 학업성취도나 기타 교육의 성과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상급학교 진학률, 대학진학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방법론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2006), 이광현(2007)을 참고하기 바람.

2) 지표값의 표준화 방법

각기 단위가 다른 지표들을 합산하기 위해 지표값들을 표준화시키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표준점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 값들에 평균을 뺀 후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점수를 구한다. 지자체 A의 표준점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ext{지자체 } A \text{의 표준점수 } (Z_{i,A}) = \frac{\text{지표}_i \text{의 값} - \text{전체평균}}{\text{표준편차}}$$

요컨대 표준점수는 지표값을 표준편차의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값의 표준편차는 0이 된다. 그리고 표준점수가 (-)가 나오는 것은 지표값이 평균치보다 낮은 점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표준점수가 (+)일 때는 지표값이 평균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대연, 2004: 94).

둘째, 기준값을 설정한 후에 상대적 값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보통 평균이나 최고값을 기준값으로 정하고 다른 값들을 평균이나 최고값과의 상대적 값으로 구하는 것이다.

셋째, 구간설정을 통한 표준점수화 방법이다. 예컨대, {0, 1}을 점수 구간으로 설정한 이후 최고 점수는 1, 최저 점수는 0으로 되게 하고, 그에 따라 표준점수화하는 방법이다.

$$\text{지자체 } A \text{의 표준점수 } (x') = \frac{x - \min}{\max - \min} (w_{\max} - w_{\min})$$

넷째, 상대적인 순위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 즉, 지표값의 차이를 무시하고 상대적 순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기에 지표값의 차이가 많은 적든 동등한 차이로 환산되는 한계가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무난한 방법은 표준점수화를 통해서 지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이광현, 2007: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값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표준점수(*Z score*)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가중치 부여 방법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개발연구원(2001)에서 사용한 계층화 기법이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과학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계층화분석(AHP)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계층화분석이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지표 항목에 수치화된 가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정택희 외, 2008). 예컨대, 지역낙후도지수 개발을 다룬 한국개발연구원(2001)의 경우 전문가 77명으로부터 8개의 지표들에 대해 순위를 매긴 자료를 수합한 뒤 가중치를 산출했으며(이광현, 2007: 7), 학생역량지수를 다룬 김창환 외(2012)의 연구는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계층화분석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가중치 값을 도출한 바 있다.

둘째, 보다 점수화(Borda Scoring) 기법이 있다. 송재복·안병철(2005)이 지역 낙후도 지수 개선을 위해 사용한 기법으로, 일정 정도 순위를 중심으로 하여 각 순위에 가중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정된 지표들을 합산할 때 가중치를 어느 정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으므로 고려하기 어려운 기법이다.

셋째, 통계학적인 유의도 정도에 의하거나 상관계수 값의 크기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류방란 외(2006)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경제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유의한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방법

교육균형발전지수는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교육 관련 지표들을 교육균형발전지수로 환산하는 것이다. 류방란 외(2006)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예시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표값들을 표준화하여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특별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지수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각 지표들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text{[방식1]} \quad \text{지자체 } A \text{의 교육균형발전지수} = \sum_i Z_{i,A}$$

이와 다른 방식은 지표값들을 표준화한 후에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류방란 외(2006) 및 이광현(2007), 김창규·김영노(2012)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이 방식에서 적용되는 교육균형발전지수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지표의 지역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이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를 가중치의 합산값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여기서 w_i 는 지표 i 의 가중치, $Z_{i,A}$ 는 지표 i 의 지자체 A 지역의 표준점수를 의미한다.

$$\text{【방식2】 지자체 } A \text{의 교육균형발전지수} = \left(\frac{1}{\text{가중치합산값}} \right) \times \sum_i w_i \cdot Z_{i,A}$$

5)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방법

처음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활용한 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가중치 부여 방식을 그대로 따라 지표를 선정하고 표준점수화 한 후, 상관관계에 의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 하는 【방식2】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간 교육격차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최근 인천 내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와의 상관관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류방란 외(2006)의 방식이 본 연구에서도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방식을 적용한 결과, 경제지표인 기초수급자비율과 재정자립도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산출되고, 경제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교육지표도 별로 산출되지 않아 상관관계에 의한 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 방식이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2-2> 인천시 경제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	-0.047
재정자립도	-0.047	1

<표 2-3> 인천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014)	재정자립도 (2014)
학급당 학생수	-0.573	0.362
교원1인당 학생수	-0.276	0.761*
과소학급 비율	0.611	-0.037
시간강사 비율	0.307	-0.268
기간제교사 비율	0.059	-0.239
보건교사 확보율	-0.529	-0.385
상당전담교사 확보율	0.315	-0.252
특별교실 보유율	0.017	-0.210
체육시설 보유율	-0.277	-0.623
보건실 보유율	-0.382	-0.696
급식시설 보유율	0.470	0.351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0.534	0.089
1인당 교육비	0.528	-0.054

* $p < .05$

<표 2-4> 인천시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학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2014)	재정자립도 (2014)
학급당 학생수	-0.575	0.132
교원1인당 학생수	-0.627	0.195
과소학급 비율	0.256	0.062
시간강사 비율	0.130	-0.778*
기간제교사 비율	0.105	0.739*
보건교사 확보율	-0.297	-0.724*
상당전담교사 확보율	0.272	-0.742*
특별교실 보유율	a	a
체육시설 보유율	-0.244	0.399
보건실 보유율	-0.116	-0.076
급식시설 보유율	-0.269	0.510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0.484	0.033
1인당 교육비	0.629	-0.143
국어 미달 학생 비율	-0.478	-0.284
수학 미달 학생 비율	-0.124	-0.125
영어 미달 학생 비율	-0.390	0.303

* $p < .05$

a: 특별교실 보유율이 100%이므로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 없음

<표 2-5> 경제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일반고등학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비율 (2014)	재정자립도 (2014)
학급당 학생수	-0.839**	0.258
교원1인당 학생수	-0.752*	0.149
과소학급 비율	0.073	0.831*
시간강사 비율	-0.382	-0.297
기간제교사 비율	-0.184	0.589
보건교사 확보율	-0.051	-0.688
상당전담교사 확보율	0.774*	-0.155
특별교실 보유율	a	a
체육시설 보유율	0.614	-0.359
보건실 보유율	a	a
급식시설 보유율	-0.089	0.417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0.349	0.600
1인당 교육비	0.641	-0.327
국어 미달 학생 비율	-0.127	-0.072
수학 미달 학생 비율	0.202	0.086
영어 미달 학생 비율	0.211	0.223
학업중단 학생 비율	0.186	0.891**
대학진학률	-0.485	-0.634
전문대 진학률	-0.265	-0.471
4년제대학 진학률	-0.261	-0.234
취업률	-0.535	0.320
미진학률	0.539	0.608
학교부적응 학생 비율	0.362	0.809*

** $p < .01$, * $p < .05$

a: 특별교실과 보건실 보유율이 100%이므로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 없음

이것은 적어도 인천의 경우 지자체의 경제적 지표와 교육지표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류방란 외(2006)의 지수화 【방식1】에서 사용되었던 지수화 방식 즉,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지표들의 표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따라 지수화 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교육지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전문가들이 인정한 지표들 중

수집가능한 지표들로 선정하였고, 교육균형발전지수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어 표준점수의 합산으로 지수화 하는 방식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text{지자체 } A \text{의 교육균형발전지수} = \sum_i Z_{iA}$$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Study on Regional Education Gap in Incheon
through balanced-education development index

제3장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제1절 교육균형발전 지표 선정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에 의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제3장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제1절 교육균형발전 지표 선정

교육균형발전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를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 및 구성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지수들은 대체적으로 지수(Index), 하위 지수(Sub-Index), 지표(Indicator)의 위계질서를 갖고 구성되어 있으므로(김창환 외, 2013: 7), 본 교육균형발전지수 역시 전체 지수(Composite Index), 대영역 지수(Index), 소영역 지수(Sub-Index), 지표(Indicator)로 구성된 교육균형발전지수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1. 교육균형발전 지표 항목

교육균형발전지표 선정을 위해 국내외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육격차지표 체계를 개발한 류방란 외(2006)의 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격차 실태분석의 취지를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에 두고 학교급을 종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의 투입-과정-산출을 횡축으로 설정하여 교육격차지표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듯 교육격차의 문제는 학교교육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 지역의 경제적 상황, 인구 및 가구 구성, 도시문화 등 교육을 둘러싼 주변 영역의 문제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Coleman et al., 1966; Jencks et al., 1972; Hauser et al., 1976).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지표 항목을 차원과 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류방란 외, 2006: 40-53).

<표 3-1> 교육격차 지표 항목 예시

차원	요소	항목
사회·경제적 맥락	재정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실업률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율 가족해체가구 아동, 청소년수 장애자수 및 학령기 장애자수 다문화 가정 비율 학부모세대 고학력 성인 비율 학부모세대 저학력 성인 비율 학령인구 순이동자수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대학교 수 인구 십만명당 사설학원수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투입	교육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을 학업유예자수 및 유예율 월평균 사교육비 방과후 보살핌 요구 가정 유아·아동수 및 비율 지역 성인 주민 중 유형별 평생프로그램 참여자수
	교육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과대학교 비율 과밀학급 비율 과소학급 비율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강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비율 중등학교 과목상치교사 비율 보건교사 확보율 1년 미만 비정기전보 교사 비율 학교의 보조 인력 확보율 학교의 취약집단 발굴·지원 담당 전임인력 확보율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율

	시설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실 확보율 ▪ 실내 체육시설 확보율 ▪ 도서실 보유율 ▪ 보건실 보유율 ▪ 급식시설 확보율 ▪ 난방시설 미비율 ▪ 시설 안전성 E등급 건물 비율 ▪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보율 ▪ PC 1대당 학생수 ▪ 교원1인당PC수 ▪ 학생1인당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인터넷 회선속도 2Mbps 미만 학교 비율
	학교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 저소득층 학생수 대비 무상 급식 지원 학생 비율
과정	학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학생수 및 비율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 ▪ 신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 ▪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
결과	학업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학력 획득 수준
	과정 이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졸업률 ▪ 고등학교 중도탈락자수 및 비율
	상급학교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 ▪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진학률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자 취업률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자료: 류방란 외(2006), pp.40-53 재구성

이상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2006)과 김창규·김영노(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2개의 준거 지표와의 상관관계 산출을 통해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상관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교육격차가 드러나는 데 있어 각 지

표 항목들마다 갖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며, 교육의 질 제고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지표 항목에 대해서는 역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즉, 1개의 경제지표와 유의하면 1/2의 가중치를 주고, 2개의 지표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경우 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한 한국교육개발원(2006)과 김창규·김영노(2012)의 연구에서 지수화를 위해 실제 선정된 지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선행연구의 교육격차 지표 항목

학 교 급	류방란 외(2006) 연구		김창규·김영노(2012)의 연구		
	선정지표	가중치	선정지표	가중치	
초 등 학 교			기초생활수급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가정해체 학생 비율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역지수화 1	
			장애학생 비율	역지수화,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사교육비	1	
		과소학급 비율	역지수화, 1/2	과소학급 비율	역지수화, 1/2
		기간제교사 비율	역지수화, 1	기간제교사 비율	역지수화, 1
		보건교사 확보율	1	보건교사 확보율	1
		특별교실 보유율	1	특별실 확보율	1
		체육시설 보유율	1/2	체육시설 보유율	1/2
		도서실 보유율	1	도서실 확보율	1
		보건실 보유율	1	보건실 확보율	1
		인터넷회선속도 (2Mbps미만 비율)	역지수화, 1	다목적체육관 확보율	1/2
				기초생활수급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한부모가정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초·중·고 학·교			장애학생 비율	역지수화,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사교육비	1
	인터넷회선속도 (2Mbps미만 비율)	역지수화, 1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율	1
	과소학급 비율	역지수화, 1	학교발전기금 확보 비율	1
	기간제교사 비율	역지수화, 1	기간제교사 비율	역지수화, 1
	보건교사 확보율	1	보건교사 확보율	1
	보건실 보유율	1	특별실 확보율	1
	급식실 보유율	1/2	급식실 확보율	1/2
고·중·초 교·학·교 (읍·면·군)			기초생활수급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한부모가정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장애학생 비율	역지수화, 1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역지수화, 1
			사교육비	1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율	1
			학교발전기금 확보 비율	1
			기간제교사 비율	역지수화, 1
			보건교사 확보율	1
			특별실 확보율	1
			급식실 확보율	1/2
			수도권 4년제대학 진학률	1
			지방국립대 진학률	1/2
			지방사립대 진학률	역지수화, 1/2
		미진학율	역지수화, 1	

자료: 류방란 외(2006), p.159; 김창규·김영노(2012), p.4 재구성

류방란 외(2006)의 연구가 지수개발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선정을 시범적 사례로 제시하여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²⁾, 김창규·김영노(2012)의 경우 그 동안 학계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교육의 투입과 과정, 결과에서 교육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 영역을 선택하여 지수화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초·중·고에 걸쳐 지표 선정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창규·김영노(2012)의 경우 교육격차에 불리한 지역의 불리한 지표를 찾아 차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이므로, 지표의 선정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목을 선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에 류방란 외(2006)의 연구와는 달리, 다양하고 많은 지표 항목이 선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교육균형발전 지표 선정

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수체계는 현실적으로 지표를 구하기 어렵거나 조사가 어려운 경우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지표들이 존재한다(김창환 외, 2012: 92). 더욱이 인천시의 지역별 교육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항목들은 보편적 요인뿐 아니라 인천시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균형발전지수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 국제 통계 품질 진단 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에 따라 지수 및 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교육균형발전지수체계의 개발 기준은, 김창환 외(2013: 44)의 제안을 참고하여, 타당성(relevance), 신뢰성(rel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가용성(availability)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표 및 지수의 타당성(적절성)은 교육균형발전지수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 및 지수가 교육격차 개념에 부합하고 인천시 자치구별 교육격차 수준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표 및 지수의 신뢰성은 교육균형발전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측정가능성은 교육격차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균형발전지수 개

2) 류방란 외(2006)의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평준화지역이 존재하는 고등학교급은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념에는 부합하더라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지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가용성은 지표 및 지수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확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는 타당한 지표라고 하더라도 확보가능하지 않을 경우 지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항목들을 선정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사회·경제적 맥락 영역에서, 재정·경제 영역은 자치구별로 수집이 가능한 지표만을 선정하여 비율로 비교하였고, 인구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은 자치구별 교육격차와 관련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한해 자치구별로 지역격차 상황을 비교하였다.

투입 영역은 초·중·고의 인적 및 시설 자원이 지역별 교육격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의미가 없거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많은 교육기회 영역은 제외하고, 교육환경 영역에서도 교육격차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지표들은 제외하고 지수화하기로 하였다. 인적 및 시설 자원 영역에서는 활용가능한 지표들을 최대한 선정하였고, 학교재정에서도 활용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과정영역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는 학교별 개별 조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활용하기 어려워 자치구별 자료로 활용가능한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자 비율만 비교하였다.

결과 영역에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통해 중·고의 기초학력수준을 가능해 보고, 그 외 과정이수율이나 상급학교진학, 취업 등의 지표들은 고등학교급(일반계고교)에 한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초·중학교 단계는 이수율이나 진학을 자체가 워낙 높아 지역별 비교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표 3-3> 교육균형발전지수 구성 지표 검토

지표 영역	소 영역	지표	타당성	신뢰성	측정 가능성	가용성	반영여부	
사회·경제적 맥락	재정 경제	재정자립도	○	○	○	○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	○	○	○	
		실업률	○	○	○	×	×	
	인구	빈곤율	×	○	○	×	×	×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대체)
		가족해체가구 학생수	○	○	○	×	×	× (소년소녀가장 학생수로 대체)
		학령기 장애자수	○	○	○	○	○	○
		다문화 가정 비율	×	○	○	△	×	×
		학부모세대 학력 수준	○	×	○	×	×	×
		학령인구 순이동자수	×	○	○	○	○	×
		유형별 대학교 수	×	○	○	○	○	×
	사회 문화	사설학원수	○	○	○	○	○	○
		도서관수	○	○	○	○	○	○
		문화시설수	○	○	○	○	○	○
		체육시설수	○	○	○	○	○	○
		취학률	×	○	○	×	×	×
투입	교육 기회	월평균 사교육비	○	○	○	×	×	×
		방과후보살핌 요구 가정	×	×	×	×	×	×
		평생프로그램 참여자수	×	○	○	×	×	×
		교원1인당 학생수	○	○	○	○	○	○(학급당학생수+교원1인당학생수)
	교육 환경	과대학교 비율	×	○	○	○	×	×
		과밀학급 비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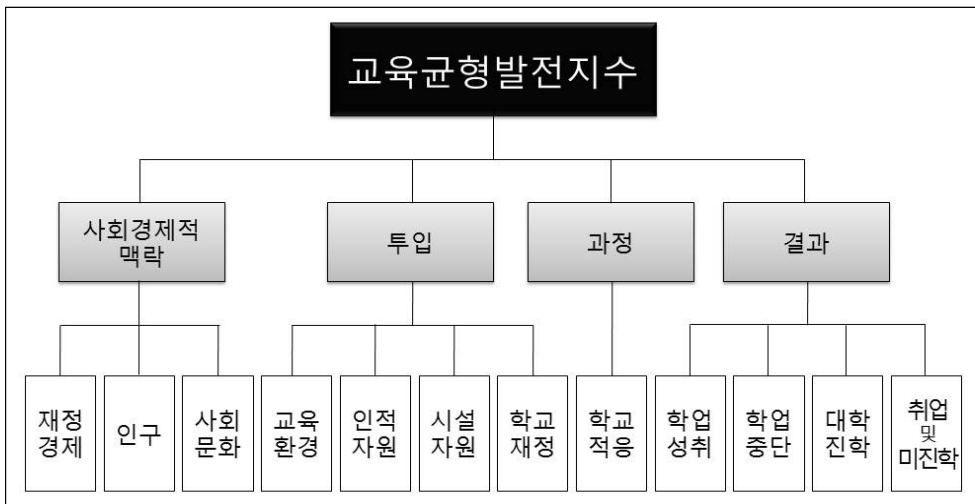
부 인	인적 자원	과소학급 비율	○	○	○	○	×
		시간강사 비율	○	○	○	○	○
		기간제교사 비율	○	○	○	○	○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비율	×	○	○	○	×
		중등학교 과목상치교사 비율	×	×	×	×	×
		보건교사 확보율	○	○	○	○	○
		1년 미만 비정기전보 교사 비율	×	×	×	×	×
		학교의 보조 인력 확보율	×	×	×	×	×
		전문상담교사 확보율	○	○	○	○	○
		특수학급 교원 확보율	×	○	○	○	×
		특별교실 확보율	○	○	○	○	○
	시설 자원	실내 체육시설 확보율	○	○	○	△	○ (체육시설)
		도서실 보유율	×	○	○	○	×
		보건실 보유율	○	○	○	○	○
		급식시설 확보율	○	○	○	○	○
		난방시설 미비율	○	×	×	×	×
		시설 안전성 E등급 건물 비율	○	×	×	×	×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보율	×	○	○	○	×
		PC1대당 학생수	×	○	○	○	×
		교원1인당 PC수	×	○	○	○	×
학생1인당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	×	×	
인터넷 회선속도 2Mbps 미만 학교 비율		×	×	×	×	×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학교 재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	○	○	○	○ (1인당교육경비)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	○	○	○	×
		저소득층 학생수 대비 무상 급식 지원 학생 비율	×	×	○	×	×
		학생1인당 교육비	○	○	○	○	○
과정	학교 적응	학교 부적응 학생수 및 비율	○	○	○	○	○ (일반고)
	프로 그램 제공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	×	×	×	×
		신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	×	×	×	×
		성적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비율	○	×	×	×	×
결과	학업 성취	기초 학력 획득 수준	○	○	○	○	○
	과정 이수율	고등학교 졸업률	×	○	○	○	×
		고등학교 중도탈락자수 및 비율	○	○	○	○	○ (학업중단자수)
	상급 학교 진학	고등학교 진학률	×	○	○	○	×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률	×	○	○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	○	○	○ (대학진학률,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률)
	취업	중학교 졸업자 취업률	○	×	×	×	×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	○	○	○	○ (취업률, 미진학률)

3. 교육균형발전지수 지표(안)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다수의 지표 항목들 가운데서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인천시 자치구별·학교급별 교육격차를 비교하기에 타당성이 있는 항목들을 선정하여 교육균형발전지수 지표(안)을 개발하였다. 교육균형발전지수는 다음과 같이 4개의 대 영역(Index)과 12가지 소 영역(Sub-Index)의 총 29개 지표들(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교육균형발전지수 체계

가. 사회·경제적 배경 영역

소 영역	지표
재정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립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학령기 장애인 비율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 수 도서관 수 문화시설 수 체육시설 수

나. 투입 영역

소 영역	지표
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학생수 ▪ 교원1인당 학생수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강사 비율 ▪ 기간제교사 비율 ▪ 보건교사 확보율 ▪ 상담전담교사 확보율
시설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실 보유율 ▪ 체육시설 보유율 ▪ 보건실 보유율 ▪ 급식시설 보유율
학교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 학생1인당 교육비

다. 과정 영역

소 영역	지표
학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적응 학생수 및 비율(고)

라. 결과 영역

소 영역	지표
학업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도평가 결과(중,고)
학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중단 학생수 및 비율(고)
대학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률(고) ▪ 전문대 진학률(고) ▪ 4년제 대학 진학률(고)
취업 및 미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고) ▪ 미진학률(고)

제2절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에 의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1.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영역에는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재정·경제 영역과 학령기 인구 및 학생의 인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구 영역, 지역 간 사회·문화적 시설 현황을 비교하는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경제적 배경의 지표들은 지수화 하지 않으며 지역 간 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교육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각 영역별 교육격차 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경제 영역

(1)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이며, 다음이 서구, 연수구 순이었다. 중구의 경우 영종도가 편입된 이후 인천공항과 항만 등의 효과로 지방세수입은 늘어난 반면에 인구는 적은 편이어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구이며 이어서 남구, 계양구, 부평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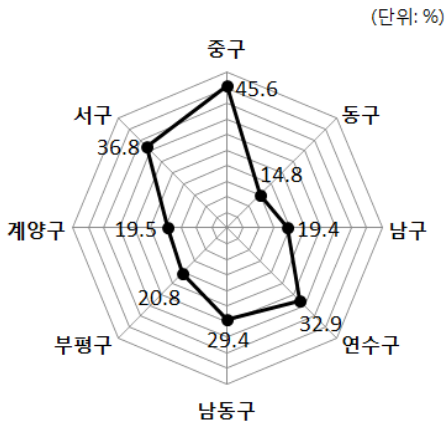
(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전체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눈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엄밀히 말하면 주민1인당 지방세수입액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비교해 본 결과, 역시 중구가 가장 높고 다음은 연수구, 서구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계양구였고, 다음이 부평구, 남구 순이었다. 동구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인구가 너무 적어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에서는 순위가 4위였다. 재정자립도와 마찬가지로,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에서도 지역간 격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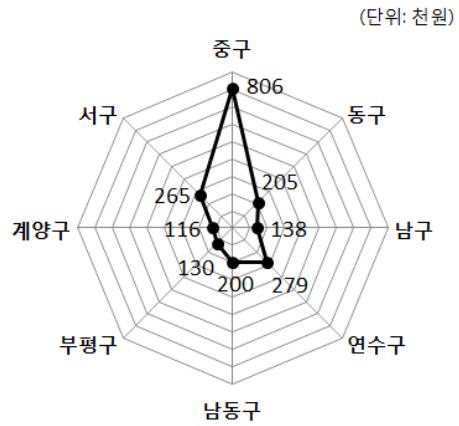
<표 3-4> 인천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및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단위: %, 천원, 명)

구분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인구수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중구	45.6	86,883,950	107,774	806
동구	14.8	15,369,000	75,093	205
남구	19.4	56,850,000	411,330	138
연수구	32.9	83,689,000	300,305	279
남동구	29.4	101,482,516	507,021	200
부평구	20.8	72,365,000	556,985	130
계양구	19.5	39,716,000	343,806	116
서구	36.8	130,016,000	490,035	265

자료: 재정고 홈페이지(2014), 통계청 조사기획과, e-지방지표(2014)



<그림 3-2>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그림 3-3> 자치구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 인구 영역

(1)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2014년 기준 만 6~17세의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총 9,92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2.7%를 차지하였다. 전체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부평구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3.2%), 남구와 남동구(3.1%), 동구(3.0%)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서구(1.8%)와 계양구(2.0%), 연수구(2.4%) 지역의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인천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학령기별로 살펴볼 경우, 학령기가 높아질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 학령인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부평구 지역이 2.4%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학령인구는 중구가 3.8%,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동구가 5.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구 지역은 각 학령인구 구간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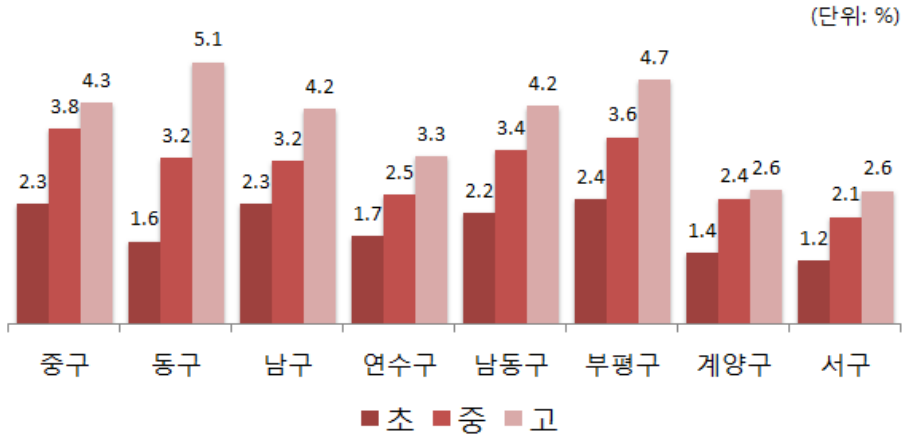
<표 3-5> 인천시 자치구별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학령인구 (만 6-11세)			중학교 학령인구 (만 12-14세)			고등학교 학령인구 (만 15-17세)			전체 학령인구 (만 6-17세)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수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수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수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인구수	비율
인천시	3,061	162,387	1.9	2,803	95,116	2.9	4,060	109,323	3.7	9,924	366,826	2.7
중구	156	6,742	2.3	131	3,459	3.8	147	3,431	4.3	434	13,632	3.2
동구	60	3,747	1.6	63	1,963	3.2	117	2,310	5.1	240	8,020	3.0
남구	444	19,093	2.3	354	11,224	3.2	563	13,528	4.2	1,361	43,845	3.1
연수구	338	19,844	1.7	308	12,320	2.5	445	13,679	3.3	1,091	45,843	2.4
남동구	647	30,032	2.2	581	17,250	3.4	803	19,075	4.2	2,031	66,357	3.1
부평구	689	28,409	2.4	627	17,344	3.6	983	20,777	4.7	2,299	66,530	3.5
계양구	248	17,986	1.4	273	11,232	2.4	364	14,029	2.6	885	43,247	2.0
서구	405	33,221	1.2	380	18,330	2.1	520	20,177	2.6	1,305	71,728	1.8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인천통계>주민등록인구>2014년 1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주: 인천시 데이터는 강화-옹진군 포함



<그림 3-4> 학교급별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 소년소녀가장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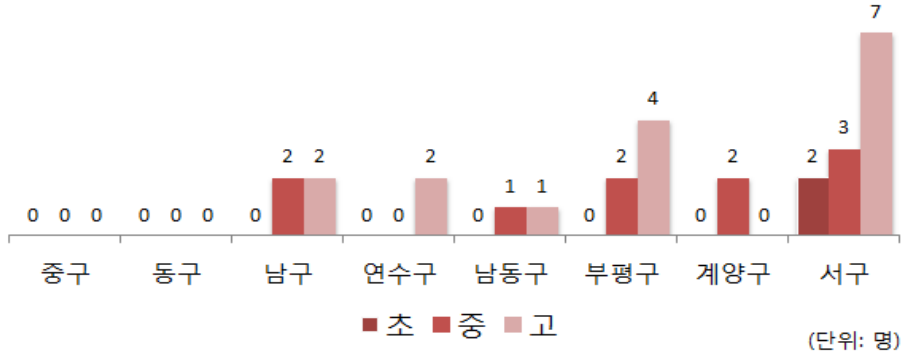
인천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중 2014년 기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총 30명으로,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18명이었다. 그 가운데 자치구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수를 비교해 보니, 서구에 가장 많은 학생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생 2명이 모두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 중구와 동구에는 재학 중인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인천시 자치구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구분	합계	세대주	세대원	재학별			기타 (미진학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천시	30	22	9	2	10	18	0
중구	0	0	0	0	0	0	0
동구	0	0	0	0	0	0	0
남구	4	3	1	0	2	2	0
연수구	2	2	0	0	0	2	0
남동구	2	1	1	0	1	1	0
부평구	6	6	1	0	2	4	0
계양구	2	1	1	0	2	0	0
서구	12	7	5	2	3	7	0

자료: 2014 인천통계연보

주: 인천시 데이터는 강화·옹진군 포함



<그림 3-5> 학교급별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3) 학령기 장애인

전체 학령인구 가운데 장애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인천시에는 총 3,732명의 학령기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자치구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동구와 부평구는 1.2%로 인천시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반면 연수구와 서구는 0.9%로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동구에는 중학교 학령기 장애인이 1.6%, 고등학교 학령기 장애인이 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7> 인천시 자치구별 학령기 장애인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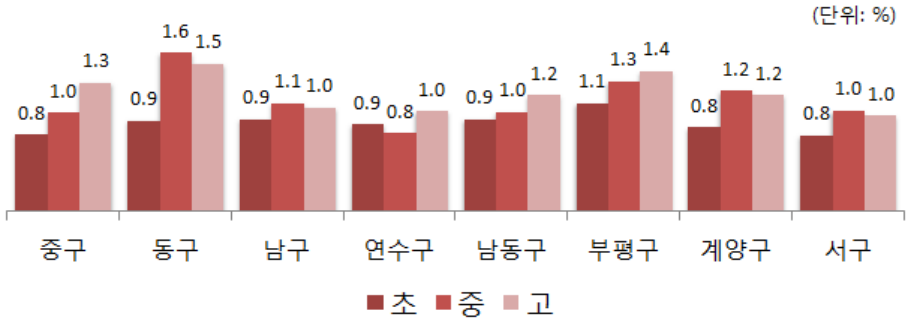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학령인구 (만 6-11세)			중학교 학령인구 (만 12-14세)			고등학교 학령인구 (만 15-17세)			전체 학령인구 (만 6-17세)		
	장애인수	인구수	비율	장애인수	인구수	비율	장애인수	인구수	비율	장애인수	인구수	비율
인천시	1,454	162,387	0.9	1,017	95,116	1.1	1,261	109,323	1.2	3,732	366,826	1.0
중구	52	6,742	0.8	34	3,459	1.0	44	3,431	1.3	130	13,632	1.0
동구	34	3,747	0.9	31	1,963	1.6	34	2,310	1.5	99	8,020	1.2
남구	176	19,093	0.9	121	11,224	1.1	140	13,528	1.0	437	43,845	1.0
연수구	173	19,844	0.9	96	12,320	0.8	137	13,679	1.0	406	45,843	0.9
남동구	277	30,032	0.9	171	17,250	1.0	221	19,075	1.2	669	66,357	1.0
부평구	307	28,409	1.1	225	17,344	1.3	290	20,777	1.4	822	66,530	1.2
계양구	151	17,986	0.8	135	11,232	1.2	163	14,029	1.2	449	43,247	1.0
서구	253	33,221	0.8	184	18,330	1.0	192	20,177	1.0	629	71,728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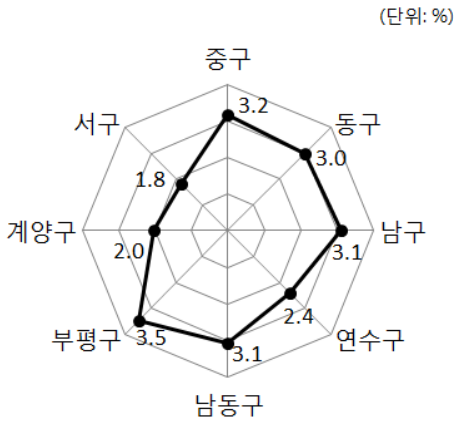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015), 장애인 등록현황(2014년 12월 말)

인천통계>주민등록인구>2014년 1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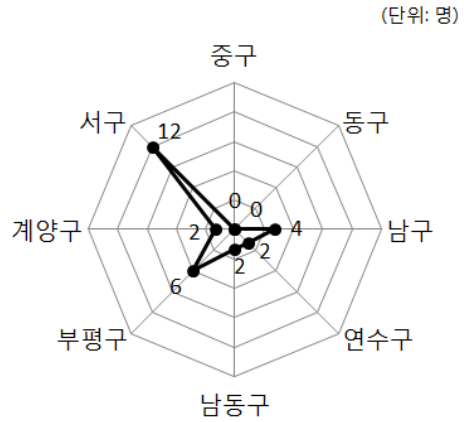
주: 인천시 데이터는 강화-옹진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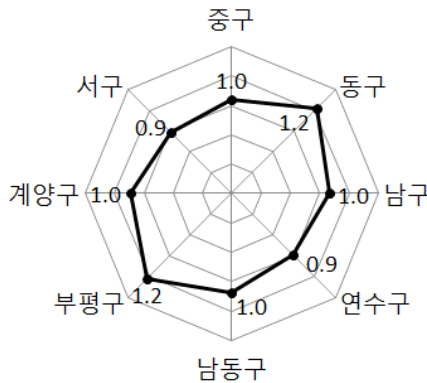
<그림 3-6> 학교급별 학령기 장애인 비율



<그림 3-7>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림 3-8> 소년소녀가장 학생수



<그림 3-9> 학령기 장애인 비율

2) 사회·문화 영역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학원,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사회문화 시설의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정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2014년 기준 인구 만 명당 학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수구가 14.8개소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구와 동구는 5.5개소와 6.2개소로 저조하였다. 인구 십만 명당 도서관 수의 경우, 남구에서 가장 많은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인구수에 비해 도서관 운영 현황이 저조한 지역은 서구(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을 인구 십만 명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구에 12.5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부평구에는 1.4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시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을 포함한 인구 만 명당 체육시설의 경우, 14.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구가 가장 많은 반면, 동구의 인구 만 명당 체육시설은 5.9개소로 열악하였다.

요컨대 사회·문화 영역에서 주민등록인구 비례로 사회·문화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치구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3-8> 인천시 자치구별 사회문화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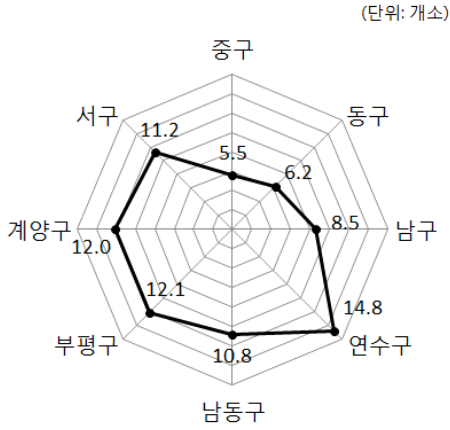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인구 만 명당 학원 수	인구 십만 명당 도서관 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시설 수	인구 만 명당 체육시설 수
인천시	10.9	1.8	3.2	14
중구	5.5	2.7	12.5	12.9
동구	6.2	2.7	4.1	5.9
남구	8.5	3.4	4.2	14.1
연수구	14.8	1.3	1.9	8.9
남동구	10.8	1.2	2.5	7.8
부평구	12.1	1.4	1.4	12.9
계양구	12.0	1.8	2.1	10.5
서구	11.2	1.0	2.0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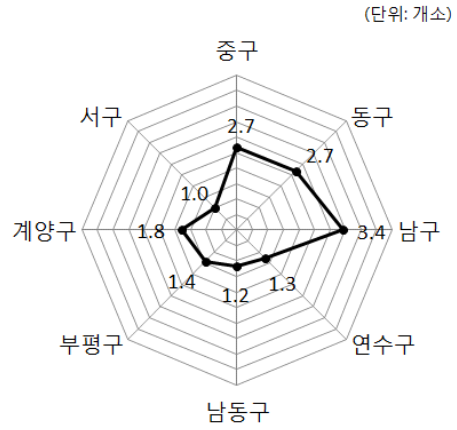
자료: 인천교육통계 교육통계자료(2014), 2015 인천통계연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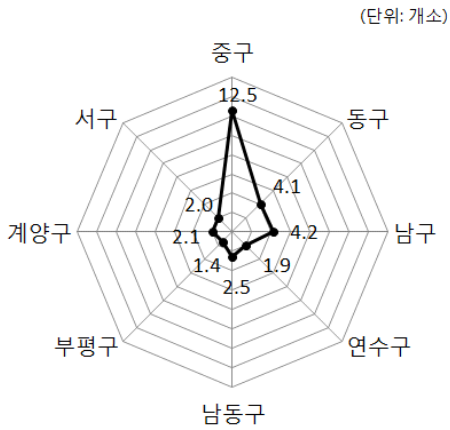
주: 인천시 데이터는 강화·옹진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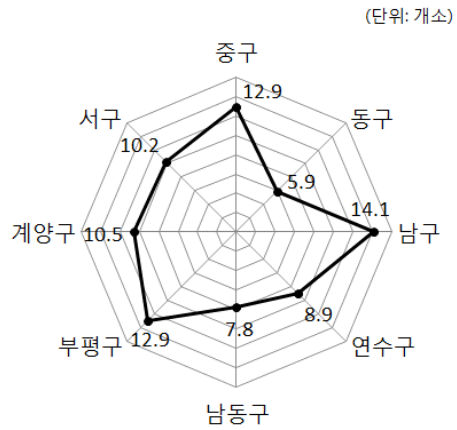
<그림 3-10> 인구 만 명당 학원 수



<그림 3-11> 인구 십만 명당 도서관 수



<그림 3-12> 인구 십만 명당 문화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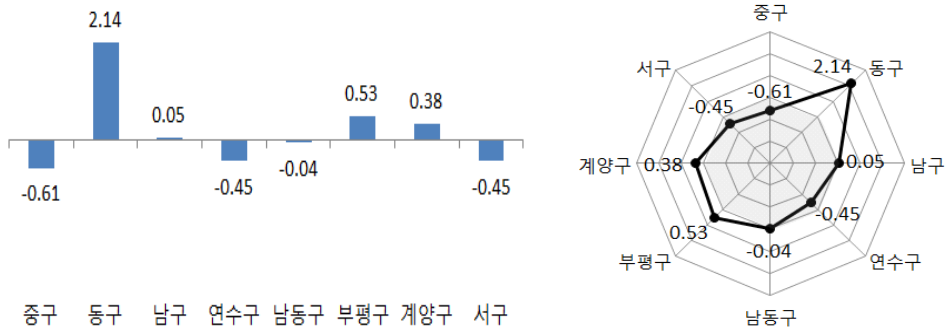
<그림 3-13> 인구 만 명당 체육시설 수

2. 교육의 투입 영역

1) 학교급별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

교육환경, 인적자원, 시설자원, 학교재정 등의 소 영역(Sub-Index)으로 이루어진 투입 영역을 종합하여 학교급별로 지수화하여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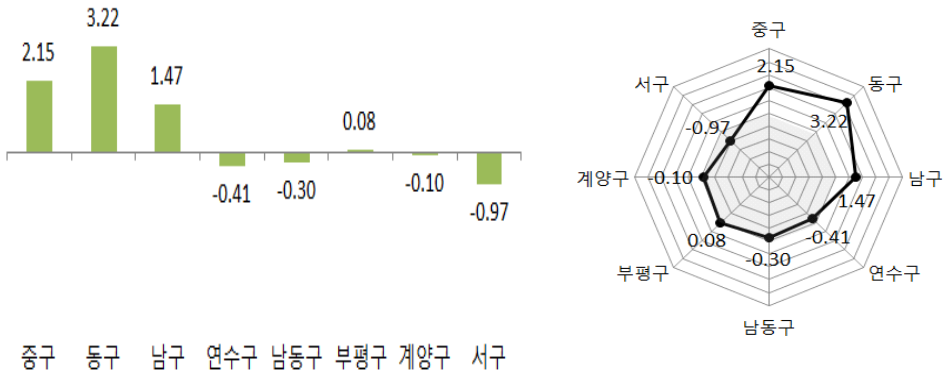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가 가장 높게 산출된 지역은 동구였다.³⁾ 즉 동구의 초등학교에 비교적 많은 인적·물적·재정적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구 다음으로 부평구와 계양구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중구였으며, 다음으로 연수구와 서구 지역에서 투입 영역의 지수값이 저조하였다.



<그림 3-14> 초등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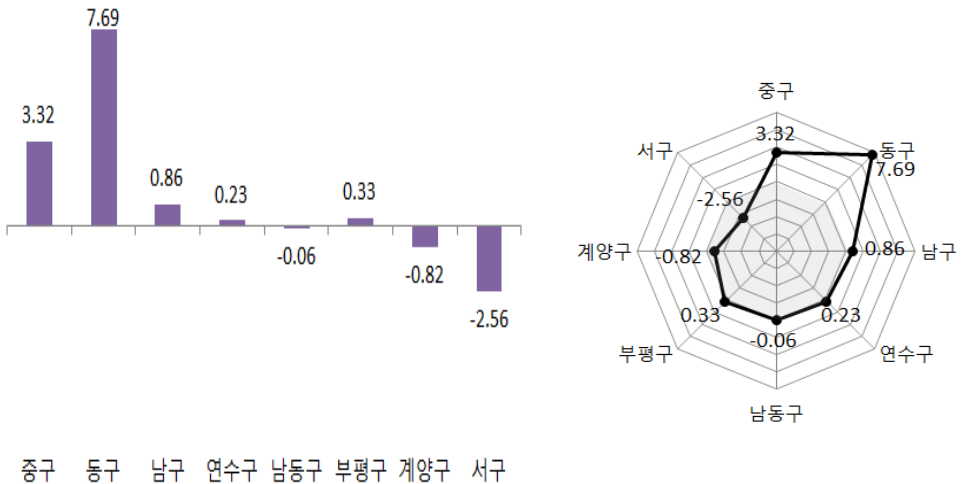
중학교 투입 영역의 지수 산출 결과, 투입 영역의 지수값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동구였으며, 이어 중구, 남구 순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서구였으며, 그밖에 연수구, 남동구 등도 투입 영역에서 다소 열악한 편으로 나타났다.

3) 동구의 경우 학교재정지수가 높아 투입 영역 지수가 높게 산출되는데, 이는 교육경비 지원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거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동구의 학교재정지수는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인천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재정지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림 3-15> 중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고등학교급에서는 동구가 7.69로 투입 영역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동구의 투입 영역 지수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초·중 학교급보다 고등학교급에서 투입 영역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어 중구가 3.32의 지수값을 얻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지역의 고등학교는 -2.56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양구도 -0.82로 투입 영역이 열악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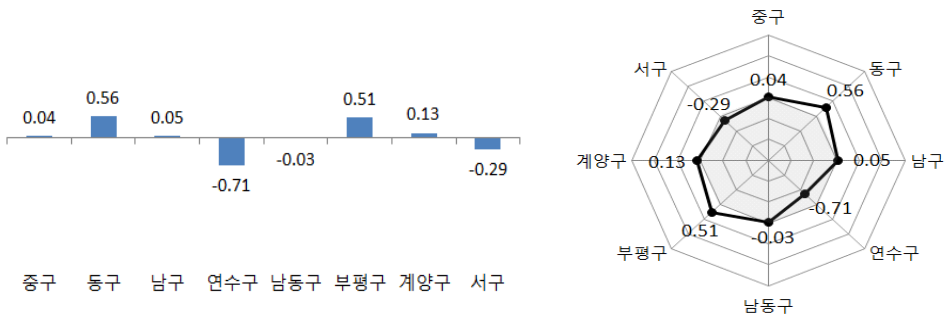
<그림 3-16> 고등학교 투입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2) 하위영역별 교육균형발전지수

(1) 교육환경지수

학생수 및 교원수의 과소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 교육환경지수를 살펴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동구와 부평구가 각각 0.56과 0.51로 양호한 지역인 반면, 연수구는 -0.71로 교육환경지수가 가장 저조하였다.

동구는 인천시 8개 자치구 가운데 초등학교 학급당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교육환경지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평구 또한 교원1인당 학생수가 동구와 동일하고, 학급당학생수는 인천 시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수구는 학급당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가 가장 과밀한 지역으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시내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에 서구(-0.29)와 남동구(-0.03) 지역도 포함되었다.



<그림 3-17> 초등학교 교육환경지수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환경지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 간 격차가 초등학교급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동구가 2.38로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1.34의 중구였다. 반면 연수구는 -0.6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지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와 중구 지역은 학급당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가 인천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교육환경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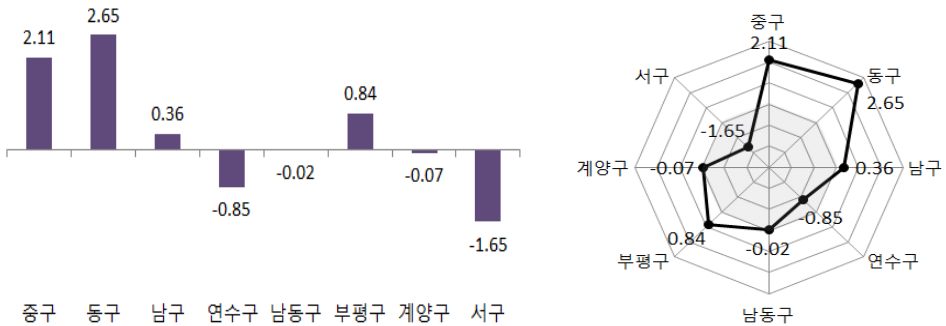
초등학교급과 마찬가지로 중학교급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은 연수구였는데, 연수구는 학급당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가 인천시에서 가장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중학교 교육환경지수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지수는 동구가 2.65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이어 중구도 2.11로 교육환경이 양호하였다. 반면, 열악한 지역은 -1.65의 서구와 -0.85의 연수구였다.

동구와 중구는 인천시 시내 평균 학급당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서 교육환경지수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는 학급당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며, 연수구는 초·중학교급과 마찬가지로 과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은 교육환경지수가 저조하였다.



<그림 3-19> 고등학교 교육환경지수

(2) 인적자원지수

인적자원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의 비율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지수1과 보건교사 및 상담전담교사의 확보율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지수2이다.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 구성이 열악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보건교사 및 상담전담교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지수1은 역지수화를 하였다.

초등학교급에서는 인적자원지수1과 2 모두 인천시 시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 간에도 눈에 띄는 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의 비율로 산출된 인적자원지수1의 경우 계양구 지역이 0.55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구는 -0.62의 지수값을 얻어 가장 열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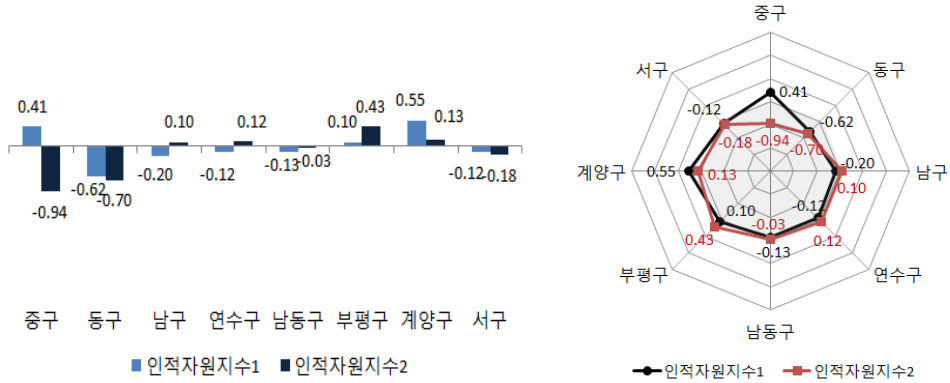
보건교사 및 상담전담교사의 확보율로 산출된 인적자원지수2의 경우, 부평구가 0.43으로 가장 양호한 반면, 중구가 -0.94, 동구가 -0.70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계양구의 경우 기간제교사 비율이 가장 낮아 인적자원지수1이 양호하였으며, 부평구는 보건교사 확보율이 인천 시내 평균보다 높고 특히 인천에서 유일하게 상담전담교사를 확보한 초등학교가 부평구에 있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지수2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 동구의 경우 인적자원지수1와 2 모두에서 저조한 지수값을 기록하였다. 동구의 초등학교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은 모두 인천시 평균보다 높아 교사구성에서 열악함이 나타났다. 또한 동구의 초등학교 보건교사 확보율은 인천시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상담전담교사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동구 초등학교의 인적자원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구의 경우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이 매우 낮아 교사구성이 양호한 반면, 보건교사 확보율은 인천시 시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며 상담전담교사 확보율은 0%로 조사되어 인적자원지수의 두 지표에서 대조적인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인적자원지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중구나 남구, 연수구처럼 같은 지역에서도 두 가지 인적자원 지표가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하여 이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부평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상담전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에 상담전담교사의 배치 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0> 초등학교 인적자원지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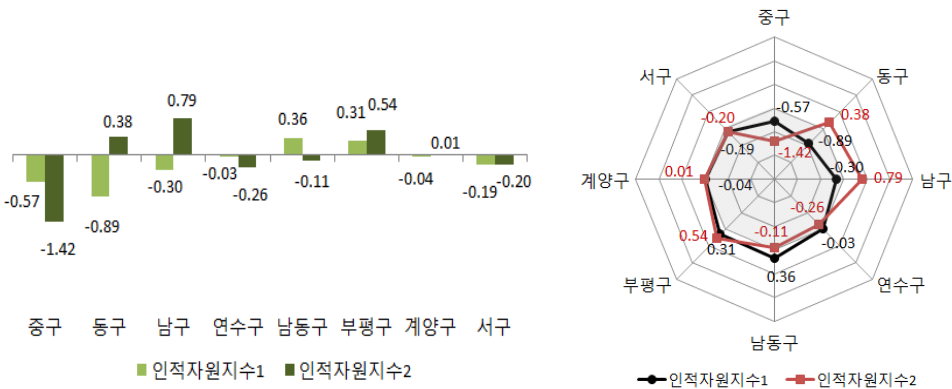
중학교의 인적자원지수 산출 결과, 인적자원지수1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남동구 (0.36)였으며, 가장 열악한 지역은 동구(-0.89)였다. 또 인적자원지수2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지수값이 0.79인 남구인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지수값이 -1.42인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경우 인적자원지수1과 2 모두에서 (+)의 비교적 높은 값을 얻어 중학교의 인적자원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인천 시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또한 보건교사 확보율과 상담전담교사 확보율은 인천 시내 평균보다 높아 비교적 우수한 인적자원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동구는 인적자원지수1에서는 가장 열악하였으나 인적자원지수2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지수값을 나타내 두 영역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지역이다. 동구의 시간강사 비율은 인천 시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간제교사 비율은 인천 시내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적자원지수1에서 -0.89의 저조한 값을 얻었다. 반면, 보건교사 확보율은 인천 시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담전담교사 확보율이 인천시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인적자원지수2에서는 0.38의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적자원지수1과 2에서 큰 격차를 보인 남구는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이 인천 시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던 데 반해, 보건의료 확보율이 8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아 인적자원2에서는 교사 구성이 양호하였다.

한편 중구 중학교의 경우,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지수1은 -0.57이었으며, 보건의료 및 상담전담교사 확보율로 이루어진 인적자원지수2는 그보다 더 열악한 수준인 -1.42로 산출되어 인적자원지수1과 2 모두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중학교 인적자원지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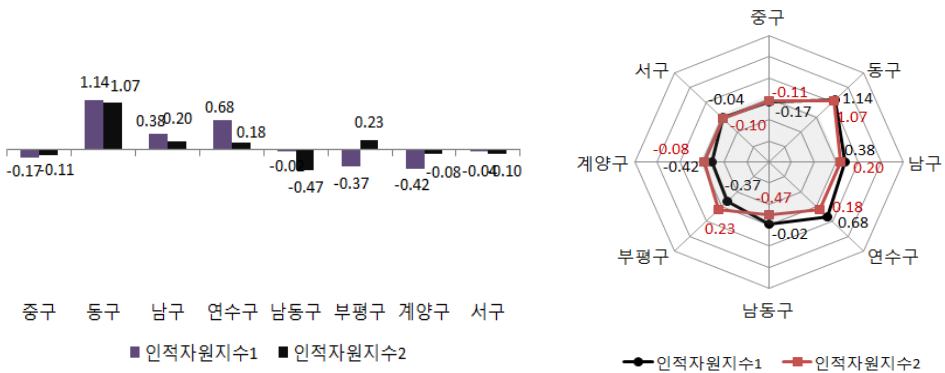
고등학교 인적자원지수의 산출 결과, 전체적으로 교사 구성이 양호한 지역은 대체적으로 동구, 연수구 등이었으며, 열악한 지역은 남동구, 계양구 등이었다.

동구의 인적자원지수1과 인적자원지수2는 각각 1.14와 1.07로 가장 높아 인천 지역 가운데 고등학교 인적자원 구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연수구는 인적자원지수1에서 0.68을, 인적자원지수2에서 0.18을 기록하여 인적자원이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남동구와 계양구의 경우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시내 평균보다 열악한 지표를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지수가 매우 저조하였다. 인적자원지수1에서는 계양구가 가장 열악하고 다음이 부평구였는데, 계양구의 경우 시간강사 비율이 가장 높고, 부평구의 경우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이 각각 인천 시내 평균보다 높아 두 지역의 인적자원지수1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적자원지수2에서는

남동구와 중구가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보건교사확보율이 저조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이 인적자원지수1과 2가 유사한 경향을 드러냄에 비해 인적자원지수1과 2가 대조적으로 상반되게 나타난 지역이 부평구인데, 부평구의 경우 인적자원지수1은 -0.37로 저조한 반면 인적자원지수2는 0.23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비율이 인천 시내 평균보다 높지만, 상담교사 확보가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22> 고등학교 인적자원지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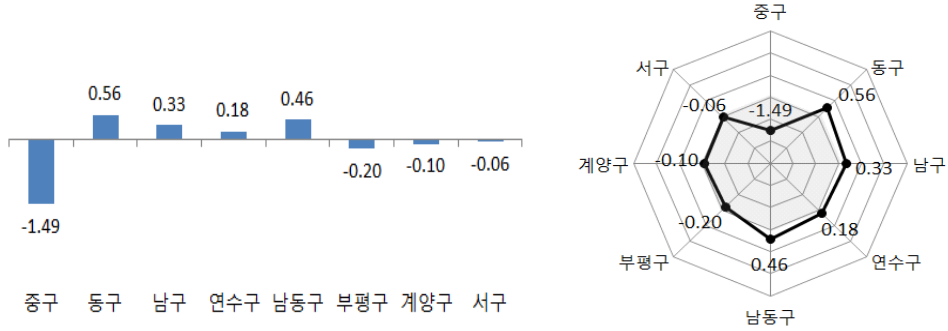
(3) 시설자원지수

시설자원지수는 학교 내 특별교실, 체육시설, 보건실, 급식시설의 보유 현황과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해 산출하였다.

초등학교 시설자원지수의 경우 동구가 0.56, 남동구가 0.46으로 시설자원이 양호한 반면, 중구는 -1.49의 저조한 지수값을 얻어 가장 열악하였다.

동구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특별교실, 체육시설, 보건실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시설 보유율도 인천 평균에 비해 다소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남동구의 경우 특별교실, 보건실, 급식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체육시설 보유율은 인천 시내 평균보다 약간 낮아 시설자원지수가 두 번째로 높았다. 연수구가 신시가지인 송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나 남동구보다 시설자원지수가 양호하지 못한 것은 특별교실 보유율과 급식시설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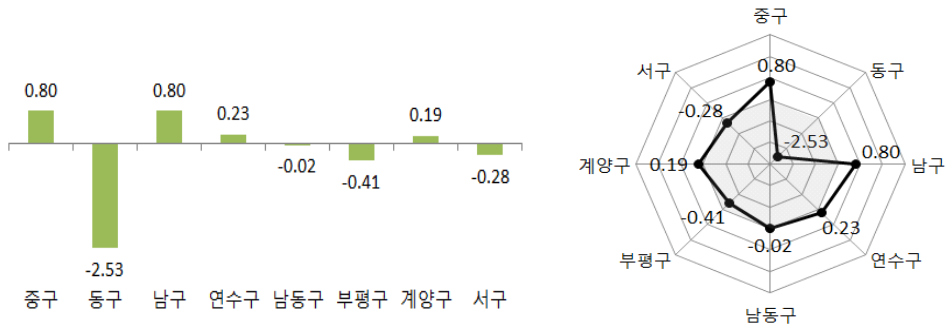
반면, 중구 지역 초등학교는 체육시설 보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자원에서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초등학교 시설자원지수

중학교의 경우, 모든 지역 중학교에서 특별교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보다 지역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설자원지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얻은 지역은 0.8의 지수값을 얻은 중구와 남구였다. 반면 동구가 -2.53의 지수값을 기록해 가장 열악하였으며, 부평구도 -0.41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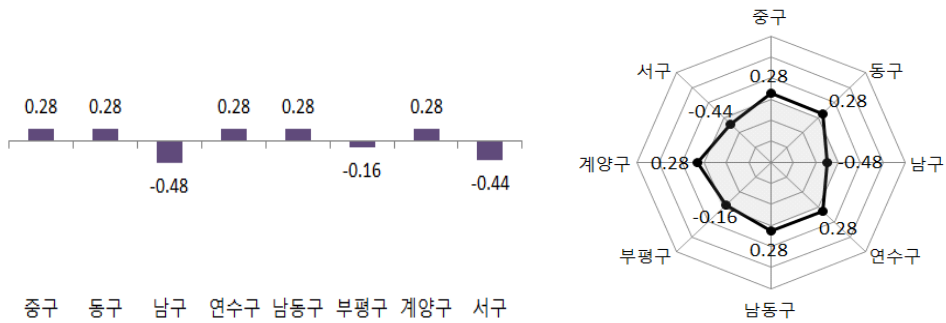
중구와 남구의 중학교는 네 종류의 시설 자원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자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구가 가장 열악한 것은 특별교실과 보건실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체육시설 보유율과 급식시설 보유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부평구가 동구 다음으로 열악한 것은 다른 시설들은 모두 갖추었으나 급식시설 보유율이 인천시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그림 3-24> 중학교 시설자원지수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지역 간 편차도 적은 편이었다. 특히 모든 지역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실과 보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의 시설자원지수를 산출한 결과,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가 모두 0.28로 시설자원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특별교실, 체육시설, 보건실, 급식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시설자원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구의 시설자원지수는 -0.4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뒤로 서구가 -0.44, 부평구 -0.16으로 이어졌다. 남구의 경우 급식시설 보유율이 저조하고, 서구의 경우 체육시설 보유율이 다소 저조하고, 부평구의 경우 급식시설 보유율이 다소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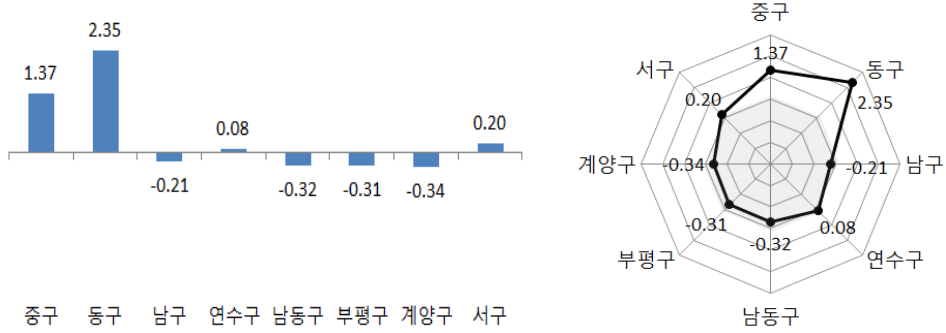
<그림 3-25> 고등학교 시설자원지수

(4) 학교재정지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과 학생1인당 교육비 지표로 이루어진 학교재정지수를 통해 지역 간 학교재정의 격차를 비교하였다.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로 원도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1인당 교육비도 높게 나타나 학교재정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경비의 경우 초등학교급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교육비의 경우 고등학교급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교재정지수를 산출한 결과, 동구가 2.35, 중구가 1.37로 이들 지역의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비는 인천 시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계양구로 학교재정지수는 -0.34였다. 그

뒤로 남동구(-0.32), 부평구(-0.31), 남구(-0.21) 순으로 열악하였다.



<그림 3-26> 초등학교 학교재정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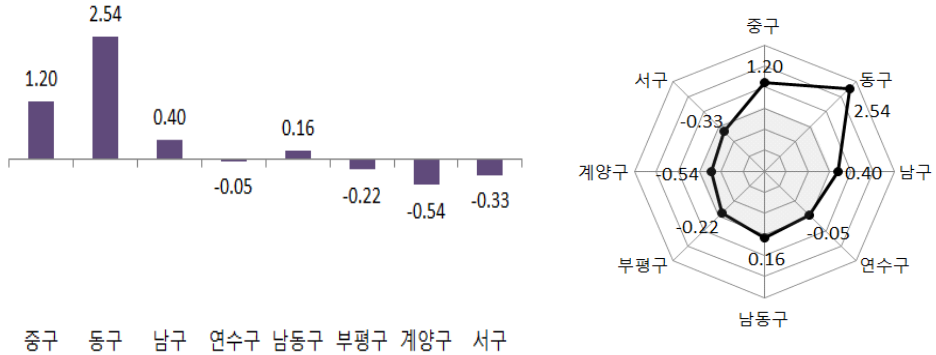
중학교 학교재정지수의 경우 동구가 3.88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도 2.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지역의 학교재정은 초등학교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천 시내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부평구는 -0.58로 학교재정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그 뒤로 계양구가 -0.38, 남동구가 -0.28로 이어졌다.



<그림 3-27> 중학교 학교재정지수

고등학교의 학교재정지수 역시 동구의 학교재정지수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1.2)와 남구(0.4)도 학교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0.54의 계양구였으며, 그 뒤로 -0.33의 서구, -0.22의

부평구 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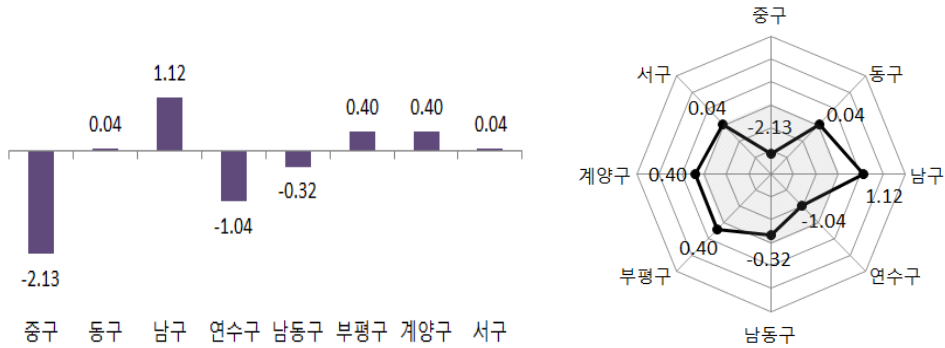
<그림 3-28> 고등학교 학교재정지수

3. 교육의 과정 영역

과정 영역의 학교적응지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부적응학생수 통계자료가 고등학교급에서만 제시되고 있으므로, 학교적응지수는 고등학교급에서만 산출되었다. 학교부적응학생 비율의 최근 자료가 2013학년도 것이어서 부득이하게 과정 영역의 지수는 2013학년도 자료로 산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부적응학생이 적을수록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기에 부적응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산출된 지수의 숫자가 작아지도록 역지수화 하였다. 즉 학교적응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지역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학교적응지수가 작아질수록 그 지역 고등학생들의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13학년도 기준 고등학교 학교적응지수의 산출 결과, 남구 지역이 1.12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평구와 계양구가 0.4로 이어져 이들 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교 적응 실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의 학교적응지수는 -2.13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수구가 -1.04, 남동구가 -0.32로 나타나 이들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자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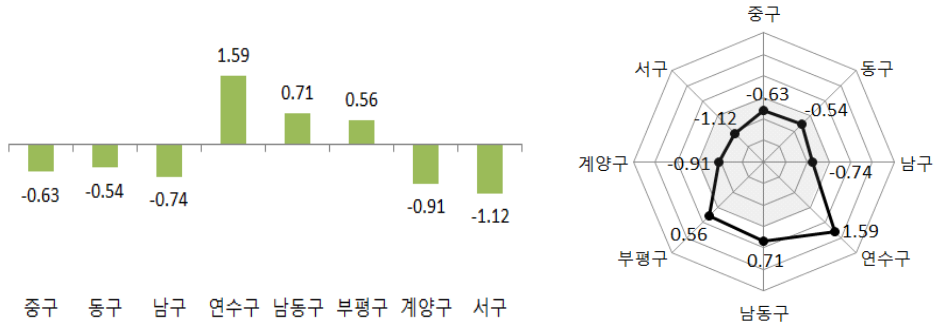
<그림 3-29> 고등학교 학교적응지수

4. 교육의 결과 영역

1) 학교급별 결과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

결과 영역은 학업성취, 학업중단, 대학진학, 전문대 및 4년제대학 진학, 취업 및 미진학 등의 소 영역(Sub-Index)으로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는 통계자료가 없어 교육의 결과 영역의 지수화는 하지 않았고, 중학교는 학업성취 영역에서만 지수 산출이 가능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결과영역의 모든 소 영역에서 지수화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학교급별로 결과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살펴볼 때, 중학교의 결과영역 지수는 중학교 학업성취지수와 동일한 결과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학업성취지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토대로 산출한 값이라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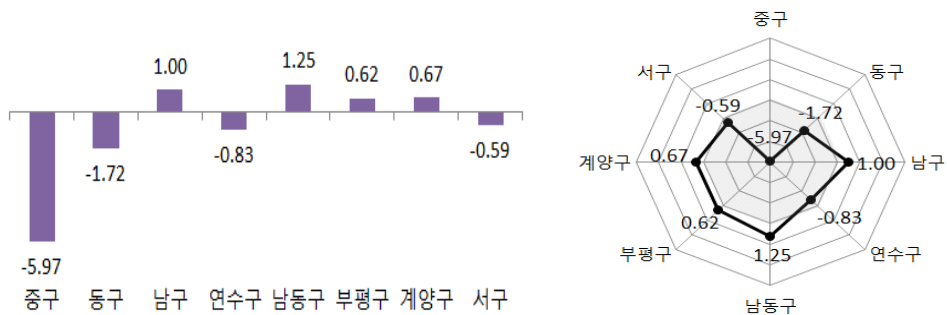
2014학년도 기준 중학교의 결과 영역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결과, 연수구가 1.59로 가장 높았으며, 남동구가 0.71, 부평구가 0.56 이었다. 반면 결과 영역에서 저조한 지수값을 얻은 지역은 서구(-1.12), 계양구(-0.91), 남구(-0.74) 등이었다. 결국 연수구 지역의 중학교는 기초미달학생이 적은 반면에, 서구나 계양구 남구 등의 중학교에는 기초미달학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학교의 결과 영역 즉, 학업성취 영역에서 지역간 격차가 꽤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0> 중학교 결과 지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결과 영역에서 고등학교급의 해석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행정구역을 넘나들어 학교군 단위로 배정되며, 또한 학교군을 넘나들 수 있는 공동학교군 소속 학교들이 있어 지역간 격차가 행정구역별 거주자들의 격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은 학교소재지에 불과하며, 타 지역 거주자들이 배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행정구역 소재지의 학교에 대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2014학년도 기준 고등학교급에서 결과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소 영역의 지표값들을 합산하여 지수화한 결과, 남동구가 1.25로 가장 양호한 지역이었고 이어 남구가 1.0, 계양구가 0.67, 부평구가 0.62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중구가 -5.97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이어 동구(-1.72)와 연수구(-0.83), 서구(-0.59)도 종합적으로 본 결과영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고등학교 결과 지역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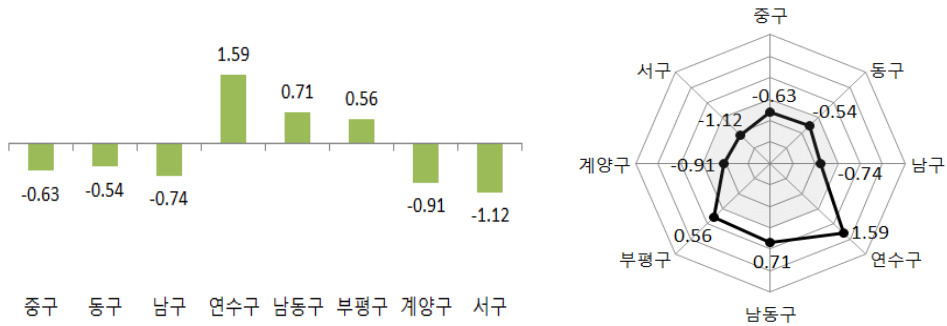
2) 하위영역별 교육균형발전지수

(1) 학업성취지수

학업성취지수는 2014년 11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기초미달 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평가결과가 제시되므로 학업성취지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급만 산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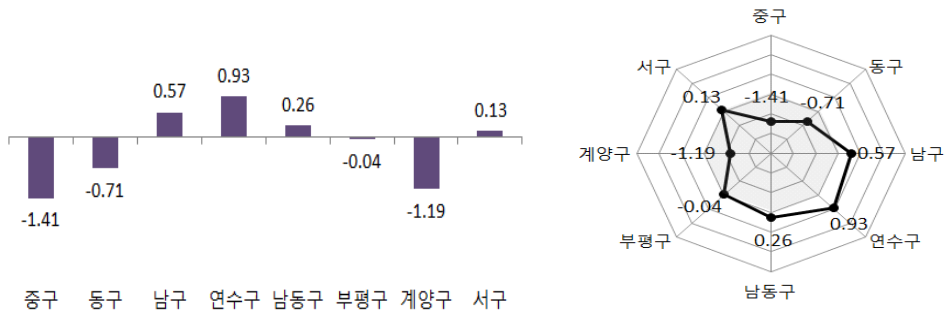
중학교의 학업성취지수를 산출한 결과,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연수구였는데 학업성취지수는 1.59였다. 그 다음으로 남동구가 0.71, 부평구가 0.56로 이어졌으며, 이들 세 지역만 인천 시내 평균보다 학업성취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성취 영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은 -1.12의 서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계양구, 남구, 중구, 동구 순으로 학업성취지수가 나타났다.



<그림 3-32> 중학교 학업성취지수

2014학년도 기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지수가 가장 큰 지역은 0.93의 연수구인 반면, 가장 저조한 지역은 -1.41의 중구였다. 연수구에 이어 남구가 0.57, 남동구가 0.26으로 학업성취가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중구와 계양구의 학업성취지수는 각각 -1.41, -1.19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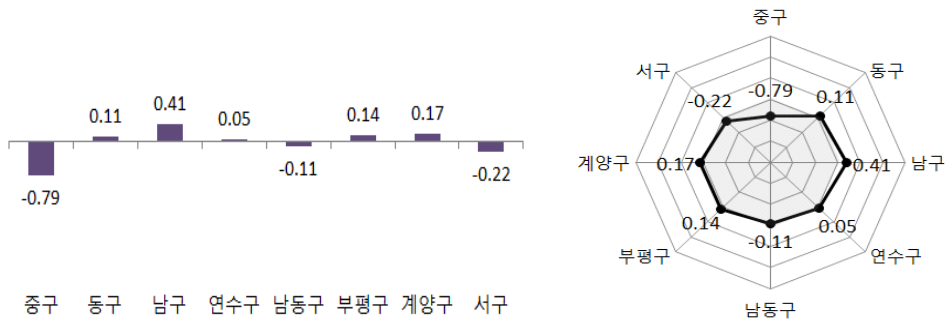


<그림 3-33> 고등학교 학업성취지수

(2) 학업중단지수

2014학년도 기준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현황을 통해 학업중단지수를 산출하여 역지수화한 결과, 지역간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실태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0.41의 지수값을 얻은 남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계양구, 부평구, 동구, 연수구 등으로 양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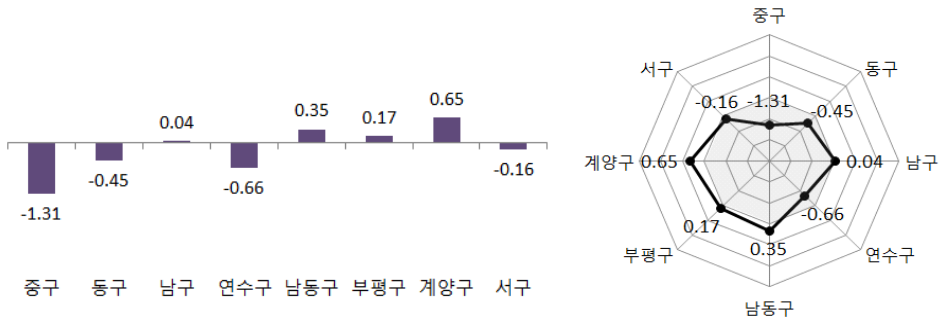
반면, 학업중단 실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은 -0.79의 지수값을 얻은 중구로,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어 서구(-0.22)와 남동구(-0.11)도 학업중단지수가 낮은 편이었다.



<그림 3-34> 고등학교 학업중단지수

(3) 대학진학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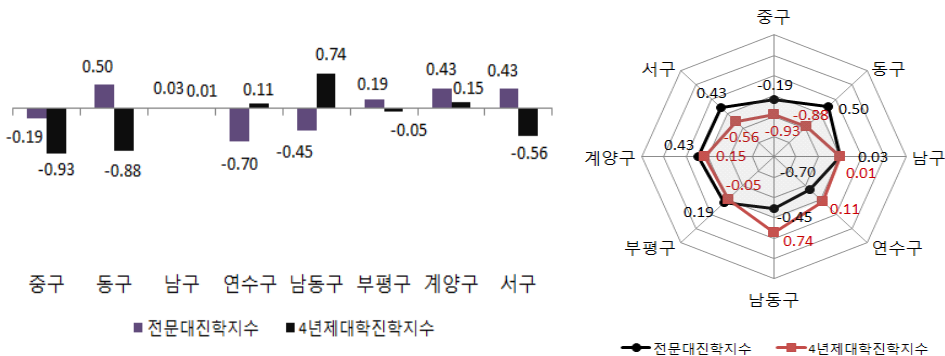
일반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을 활용하여 결과영역의 대학진학지수를 산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전문대 및 4년제대학 진학과 더불어 외국대학 진학 결과까지 포함된 대학진학결과이다. 대학진학지수의 경우 계양구가 0.65로 가장 높았고 다음 남동구가 0.35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1.31의 중구였으며, 이어 연수구(-0.66)와 동구(-0.45)도 대학진학 실태가 다소 열악하였다.



<그림 3-35> 고등학교 대학진학종합지수

(4)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

대학진학지수를 대학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문대 진학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0.5)와 계양·서구(0.43)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연수구(-0.7), 남동구(-0.45) 등으로 나타났다. 4년제대학 진학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0.74의 남동구였으며 다음이 0.19의 부평구였다. 반면 중구(-0.93), 동구(-0.88), 서구(-0.56) 순으로 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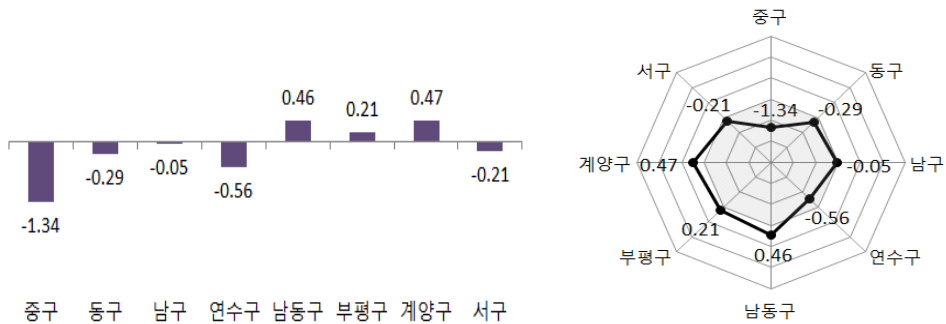
<그림 3-36> 고등학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

(5) 취업 및 미진학 지수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이외의 취업 및 미진학자 비율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의 결과 영역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과 미진학 비율이 높을수록 교육의 결과 영역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미진학지수를 산출할 때 역지수화를 적용하였으며, 취업·미진학지수가 높을수록 교육의 결과가 양호한 지역, 취업·미진학지수가 낮을수록 교육의 결과가 열악한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지수산출 결과, 계양구와 남동구가 각각 0.47, 0.46으로 가장 높은 취업·미진학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평구가 0.21로 이어졌다.

반면, 취업·미진학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중구로, -1.34의 지수값을 기록하였으며, 연수구와 동구의 경우도 각각 -0.56과 -0.29로 다소 낮았다. 이들 세 지역의 취업·미진학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3-37> 고등학교 취업 및 미진학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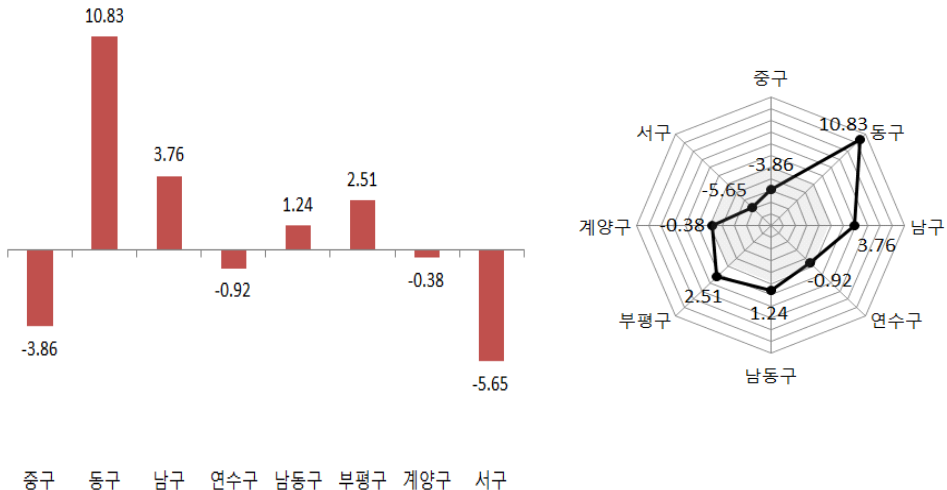
5.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1)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모든 영역의 초·중·고의 합산 결과인 교육균형발전지수는 지역별 교육 격차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지수화한 투입-과정-결과의 모든 영역과 학교급별 지수화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지역별로 종합 지수화를 시도하였다.

지역별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동구가 10.83을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남구가 3.76, 부평구가 2.51, 남동구가 1.24로 이어져 이들 지역은 인천시 평균 이상의 종합 지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실태가 가장 열악한 지역은 -5.65의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도 -3.86으로 교육균형발전지수가 두 번째로 저조하였다. 또한 연수구가 -0.92, 계양구가 -0.38로 종합적으로는 인천시 평균보다 저조한 지수를 나타내었다. 종합 지수를 토대로 보면, 지역간 교육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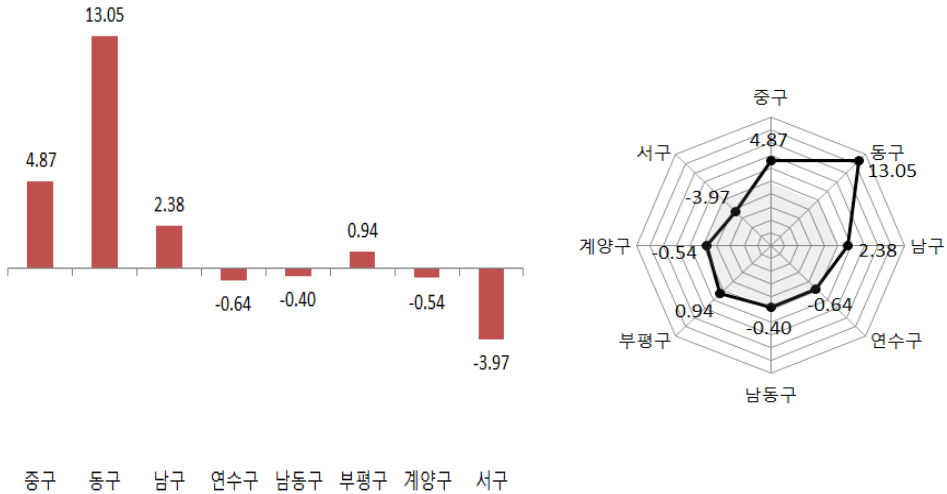
<그림 3-38> 교육균형발전지수(종합)

2) 영역별 교육균형발전지수

다음으로 교육의 투입-과정-결과의 세 가지로 구분된 대 영역(Index)별 종합 지수를 산출하여 대 영역별로 지역간 지수화를 시도해 보았다. 대 영역별 지수 산출 결과, 각 대 영역마다 지역 간의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별 투입 영역의 지수 산출 결과, 인천시의 8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13.05로 큰 격차를 보이며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중구(4.87), 남구(2.38), 부평구(0.94)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투입 영역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역은 -3.97을 기록한 서구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수구(-0.64), 계양구(-0.54), 남동구(-0.4) 지역도 인천 시내 평균보다 투입 영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 교육균형발전지수(투입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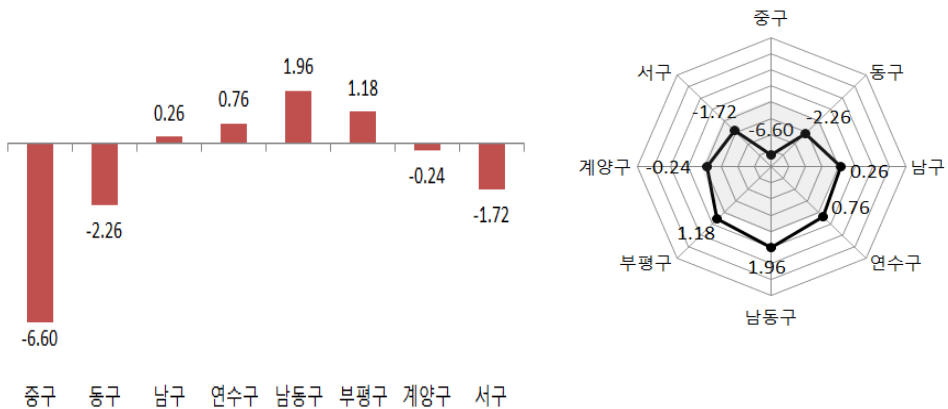
과정 영역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에 대한 지표를 활용한 것으로, 가장 양호한 지역은 1.12의 남구였으며, 부평구와 계양구도 각각 0.4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열악한 지역은 -2.13의 중구였으며, 이어서 -1.04의 연수구, -0.32의 남동구로 나타났다.



<그림 3-40> 교육균형발전지수(과정영역)

결과영역은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와 고등학교의 진학 및 취업 지표들을 지수화한 것으로, 남동구가 1.9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평구 1.18, 연수구 0.76, 남구 0.26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구의 결과영역 지수는 -6.60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 교육의 결과 영역이 매우 취약하였고, 다음으로 -2.26의 동구, -1.72의 서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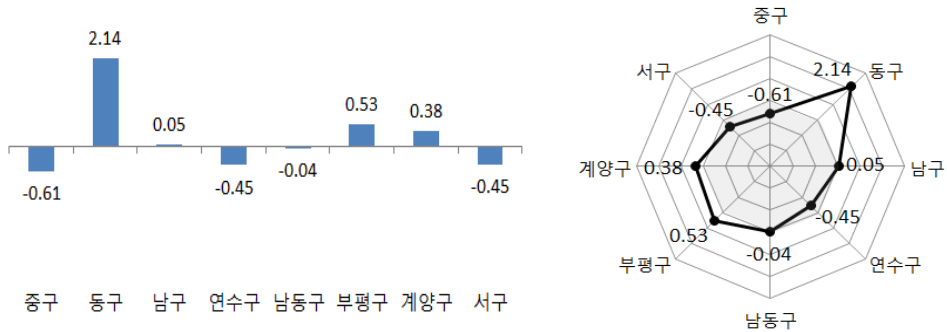


<그림 3-41> 교육균형발전지수(결과영역)

3) 학교급별 교육균형발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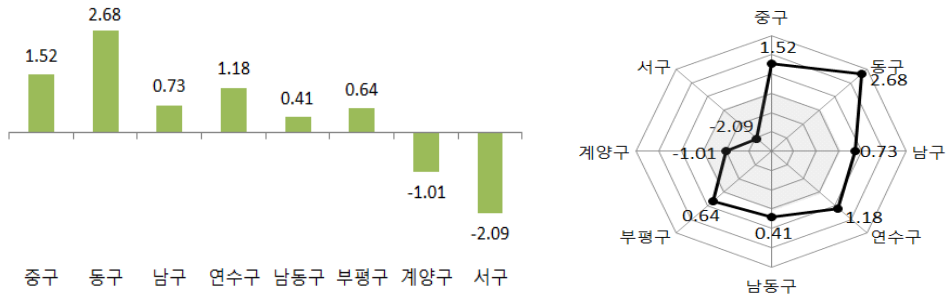
모든 영역별 합산 점수인 교육균형발전지수의 학교급별 비교를 통해 동일 학교급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격차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급이 열악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급별로 모든 영역별 지표의 표준점수를 합산하여 학교급별 지수화를 시도하였다.

초등학교의 교육균형발전지수 산출 결과, 동구가 2.14로 교육환경 및 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평구, 계양구, 남구 순으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의 경우 -0.61의 지수값을 얻어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 및 여건이었으며, 연수구와 서구가 각각 -0.45로 이들 지역도 열악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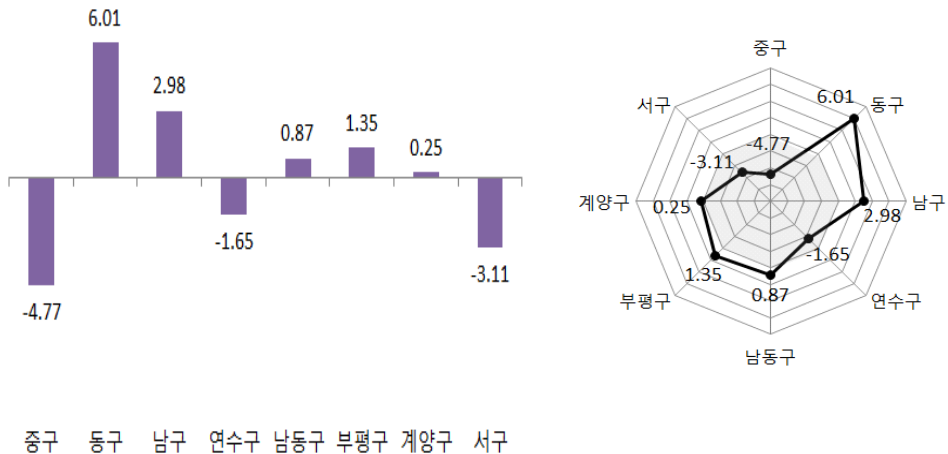
<그림 3-42> 교육균형발전지수(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동구가 2.68로 가장 양호하였으며, 중구 1.52, 연수구 1.18, 남구 0.73 등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가장 열악한 지역인 서구는 -2.09의 지수값을, 그 다음으로 열악한 지역인 계양구도 -1.01의 지수값을 얻어 서구와 계양구 지역만이 인천 시내 평균보다 열악하였다.



<그림 3-43> 교육균형발전지수(중학교)

일반고등학교의 지수 산출 결과, 초·중학교보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균형발전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6.01의 동구였으며, 남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도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중구로 -4.77의 매우 저조한 지수값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서구가 -3.11, 연수구가 -1.65로 이어졌다.



<그림 3-44> 교육균형발전지수(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Study on Regional Education Gap in Incheon
through balanced-education development index

제4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논의

제2절 정책 제언

제4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논의

1. 영역별 교육격차

1) 사회·문화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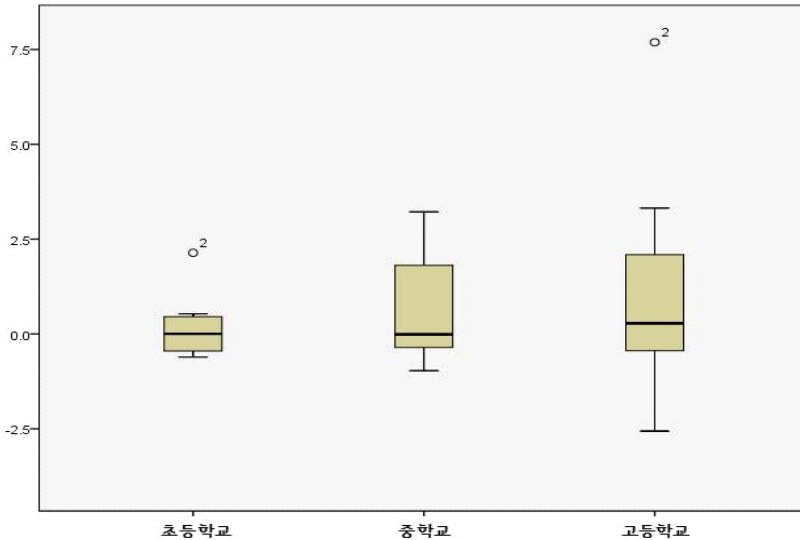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재정·경제 영역은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은 중구였다. 그 다음으로 연수구와 서구가 상위권이었으며, 동구, 남구, 계양구 지역이 하위권 수준이었다.

2014년 기준 인구 영역의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부평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구, 남구, 남동구 순으로 많았다. 소년소녀가장 학생수는 서구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평구인 반면, 중구와 동구는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장애인 비율은 동구와 부평구가 가장 높았고, 연수구와 서구에서 가장 낮았다. 즉 인구 영역에서는 부평구 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사회·문화 시설마다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인구 대비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였으며, 부평구, 계양구 등으로 이어졌다.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구 순이었다.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구, 동구 등이었다. 인구 대비 체육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였으며, 중·부평구도 많은 편이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 가장 양호한 지역은 인구 대비 학원수만 적고 나머지는 모두 양호한 남구로 나타났으며, 중구도 학원수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의 투입 영역

2014년 기준 교육 투입 영역에서의 격차는 고등학교가 가장 극심하고 다음이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동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해였기에 고등학교급의 지역간 격차는 격차 지수값 10.25로 매우 컸고, 중학교급의 격차는 4.19, 초등학교급은 2.75였다.⁴⁾ 결국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극심한데, 그것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1> 초·중·고 투입영역 지수격차

하위 영역별로 보면 학교재정지수의 격차가 가장 크고, 시설자원지수의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먼저, 교육환경지수의 경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격차가 심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수값 격차는 4.3, 중학교는 2.98, 초등학교는 1.27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적 측면에서도 고등학교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초등학교가 가장 적은 편이다.

4) 만약 동구를 제외하고 본다면, 고등학교 5.88, 중학교 3.12, 초등학교 1.14의 지수값으로 지역간 격차는 조금 완화된다는 점에서, 동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지역간 교육격차는 좀 완화된 모습일 수도 있다.

인적자원지수의 경우 중학교(3.46)가 가장 격차가 심각하고 다음이 고등학교(3.1), 초등학교(2.59)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1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간 격차가 1.56으로 가장 심각하고, 다음이 중학교(1.25), 초등학교(1.22) 순이며,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지수2의 경우에는 중학교(2.21), 고등학교(1.54), 초등학교(1.37) 순으로 격차가 심각하다.

시설자원지수의 경우 중학교(3.33)가 가장 격차가 심각하고, 다음이 초등학교(2.05), 고등학교(0.76)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자원의 측면에서는 고등학교급의 지역간 격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재정지수의 경우 지역간 격차는 중학교(4.46)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이 고등학교(3.08), 초등학교(2.69)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동구를 제외한다면, 중학교(2.58), 고등학교(1.74), 초등학교(1.71)로 격차지수값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3) 교육의 과정 영역

고등학교급에서만 산출된 지수로 지역간 격차는 3.25로 나타났다. 지역간 격차가 꽤 있는 편이다.

4) 교육의 결과 영역

중학교와 고등학교급에서만 산출된 지수로, 결과 영역 내 포함된 소 영역의 수가 차이가 있어 학교급별 비교는 하지 않는다. 다만,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업성취지수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지수의 경우 중학교의 격차 지수가 2.71로 고등학교 2.34보다 더 크게 나타나 이 영역에서는 중학교의 지역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학업중단지수의 경우 격차 지수값은 1.2였고, 대학진학지수의 경우 1.96, 전문대 및 4년제대학진학지수는 2.29, 취업 및 미진학지수는 1.81로 나타났다.

이상의 영역별 교육격차를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⁵⁾

<표 4-1>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요약)

구분	영역	가장 양호한 지역	가장 열악한 지역	지역간 지수 격차
교육의 투입 영역		동구	서구	10.25
초등학교	투입 종합	동구	중구	2.75
	교육 환경	동구	연수구	1.27
	인적 자원1	계양구	동구	1.22
	인적 자원2	부평구	중구	1.37
	시설 자원	동구	중구	2.05
	학교 재정	동구	계양구	2.69
중학교	투입 종합	동구	서구	4.19
	교육 환경	동구	연수구	2.98
	인적 자원1	남동구	동구	1.25
	인적 자원2	남구	중구	2.21
	시설 자원	중구	동구	3.33
	학교 재정	동구	부평구	4.46
고등학교	투입 종합	동구	서구	10.25
	교육 환경	동구	서구	4.3
	인적 자원1	동구	계양구	1.56
	인적 자원2	동구	남동구	1.54
	시설 자원	중·동·연수·남 동·계양구	동구	0.76
	학교 재정	동구	중구	3.08
교육의 과정 영역		남구	중구	3.25
고등학교	과정 종합	남구	중구	3.25
	학교 적응	남구	중구	3.25
교육의 결과 영역		남동구	중구	8.56
중학교	결과 종합	연수구	서구	2.71
	학업 성취	연수구	서구	2.71
고등학교	결과 종합	남동구	중구	7.22
	학업 성취	연수구	중구	2.34
	학업 중단	남구	중구	1.2
	대학진학 종합	계양구	중구	1.96
	전문대 진학	동구	연수구	1.2
	4년제대학 진학	남동구	중구	1.67
	취업 및 미진학	계양구	중구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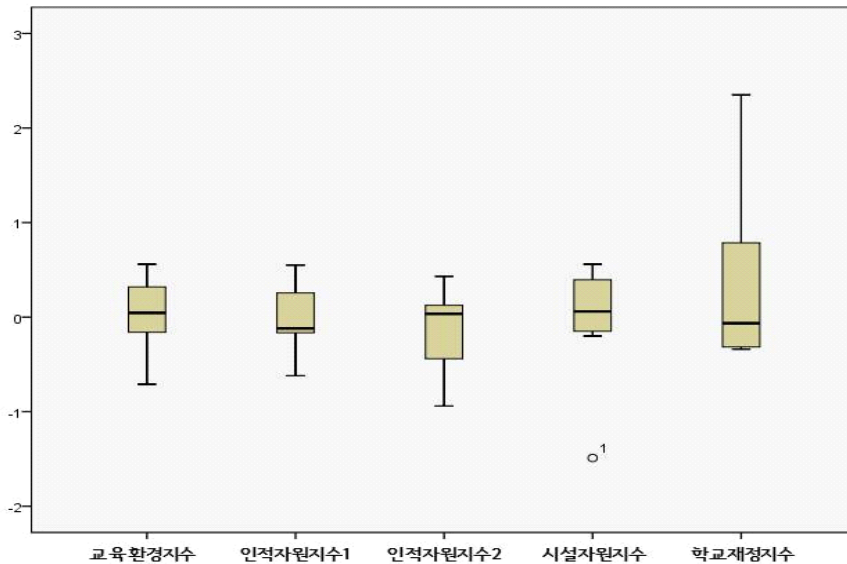
5) 사회문화적 배경 영역은 지수화하지 못하였기에 제외하였다.

2. 학교급별 교육격차

1) 초등학교

초등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2.75로, 이는 모두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격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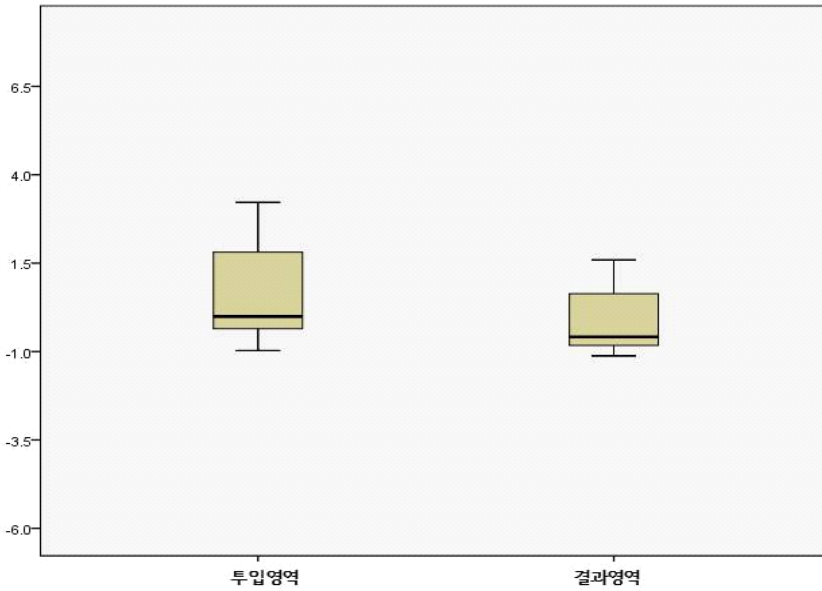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1.27,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2.59,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2.05,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2.69로 나타나, 초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영역은 학교재정과 인적자원이다. 지역간 학교재정에서 큰 격차가 있고, 교사 구성에서도 격차가 큰 편이다.



<그림 4-2> 초등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2) 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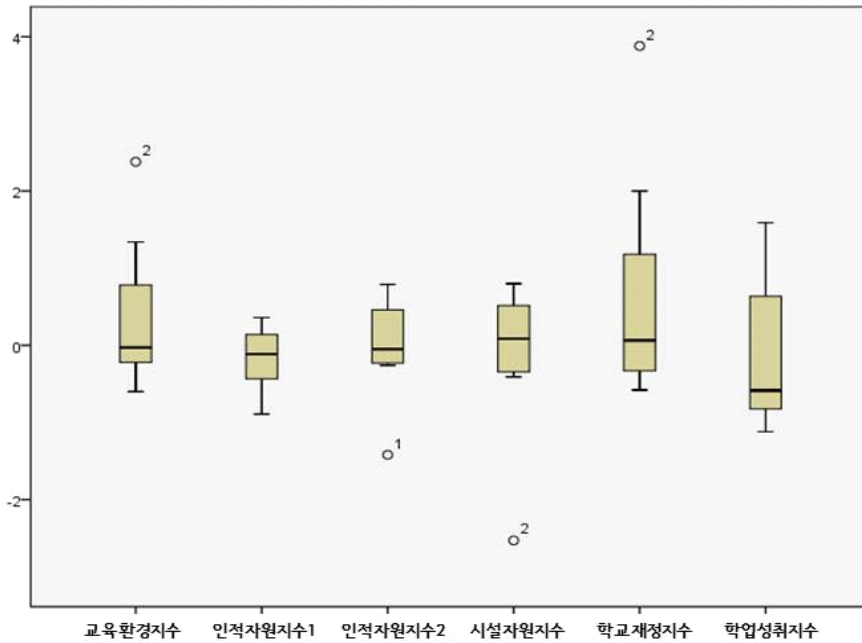
중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4.77로,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교육격차 지수값은 4.19이고,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2.71이다.



<그림 4-3> 중학교 영역별 지수격차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2.98,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3.46,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3.33,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4.46로 나타나, 중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투입 영역의 지표는 역시 학교재정이며, 다음으로 인적자원이다. 지역간 학교재정에서 큰 격차가 있고, 교사 구성에서도 격차가 큰 편으로, 초등학교급보다 격차 지수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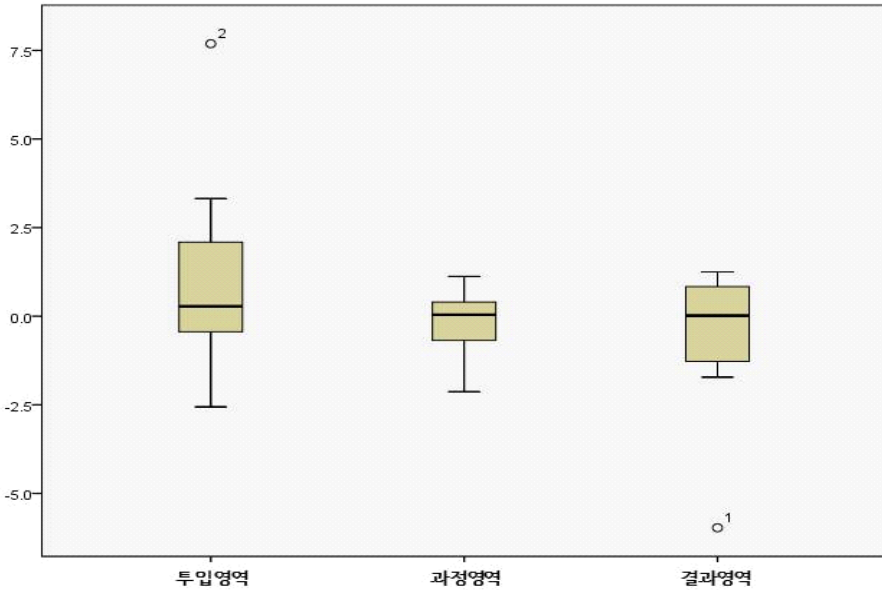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 학업성취지수의 격차는 2.71로 나타나 투입 영역의 어느 지수의 격차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중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3) 일반고등학교

고등학교급의 종합적인 교육격차 지수값은 10.78로, 격차가 가장 크다.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의 교육격차 지수값은 10.25이고, 교육의 과정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3.25,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의 격차 지수값은 7.22이다. 각 영역별로도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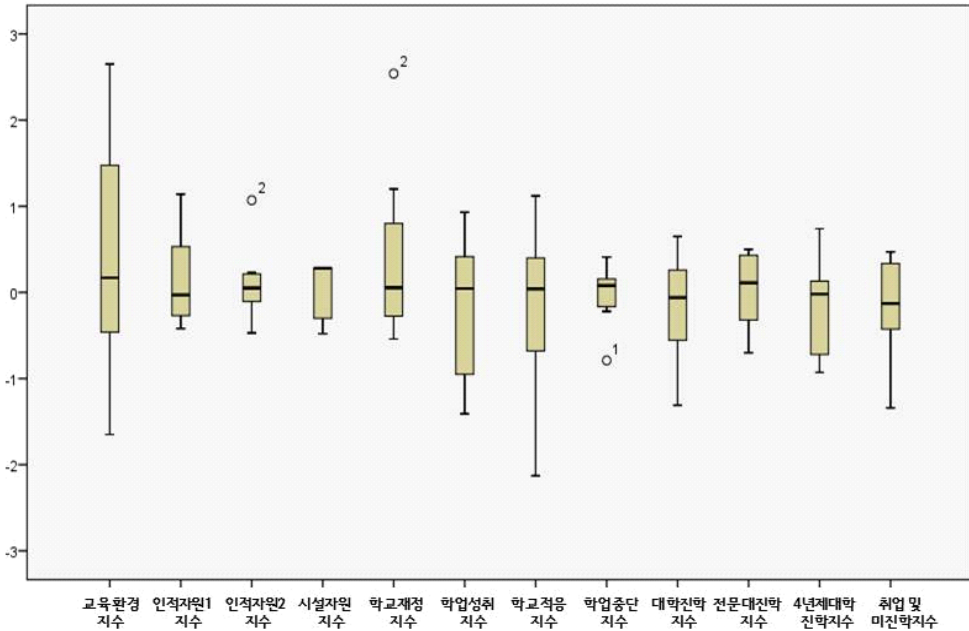


<그림 4-5> 고등학교 영역별 지수격차

교육의 투입 영역에서 교육환경지수의 격차는 4.3, 인적자원지수의 격차는 3.1, 시설자원지수의 격차는 0.76, 학교재정지수의 격차는 3.08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투입 영역의 지표는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이며, 다음으로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이다. 지역간 학급당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에서 큰 격차가 있고, 교사 구성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의 과정 영역에서의 학교부적응 격차 지수값은 3.25로 교육환경지수 다음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 학업성취지수의 격차는 2.34이고, 학업중단지수의 격차는 1.2, 대학진학종합지수는 1.96, 전문대 및 4년제대학진학지수는 2.87, 취업 및 미진학지수는 1.81로 나타나, 고등학교급에서 가장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결과 영역의 지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지수이고, 다음이 학업성취지수이다.



<그림 4-6> 고등학교 하위영역 지수격차

3. 지역별 교육격차

1) 중구

중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재정·경제 영역에서 최상위권이었지만, 인구 영역 중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령기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또한,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학원시설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즉, 중구는 역사문화지구답게 다른 지역보다 사회문화 환경은 양호한 편이었다.

2014년 기준 중구 지역은 중학교급에서는 상위권의 수준이지만, 초등학교와 일반고교급에서는 최하위권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지수1과 학교재정지수는 양호하지만, 교육환경지수가 중위권 수준이고 인적자원지수2와 시설자원지수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관련 교사 구성과 학교재정은 양호하지만, 복지 관련 교사 구성과 특별실 보유 시설 측면에서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중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하면 복지 관련 교사 구성이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중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와 학교재정지수도 양호하고 시설자원지수는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인적자원지수가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적 측면과 특별실 보유 시설 측면, 학교재정 등은 양호한 편이지만, 교사 구성 및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측면에서는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고, 보건교사나 상담전담교사가 확보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중학교급에서 교사 구성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은 중구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중위권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중간 정도로 나타나, 중학교급에서 기초미달 학생이 타 지역보다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양호한 편이지만, 교육의 과정 영역이나 결과 영역에서는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지수를 제외하면 다른 지수들은 모두 상위권 수준이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이나 시설자원 측면, 학교재정 측면 모두에서 상위권 수준을 보인다. 다만, 교사 구성 관련 측면이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런데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부적응자나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높고 기초미달자의 비율도 높으며, 전문대학 진학비율은 중위권이지만 전체적인 대학진학률이 아주 낮고, 취업자나 미진학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중구의 경우 일반고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투입의 측면에서 교사 구성 관련 지수가 낮다는 점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2> 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매우 열악	양호	매우 열악
투 입	투입 종합	매우 열악	양호	양호
	교육 환경	보통	양호	양호
	인적자원1	양호	열악	열악
	인적자원2	매우 열악	매우 열악	열악
	시설 자원	매우 열악	매우 양호	매우 양호
	학교 재정	양호	양호	양호
과 정	과정 종합	-	-	매우 열악
	학교 적응	-	-	매우 열악
결 과	결과 종합	-	보통	매우 열악
	학업 성취	-	보통	매우 열악
	학업 중단	-	-	매우 열악
	대학진학 종합	-	-	매우 열악
	전문대 진학	-	-	열악
	4년제대학 진학	-	-	매우 열악
	취업 및 미진학	-	-	매우 열악

따라서 중구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는 투입 영역의 교사 구성 측면의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 특히 중학교급에 그리고 복지 관련 교사 구성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고의 경우 과정과 결과 영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동구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중위권이었으며, 인구 영역에서는 학령기 장애인 비율은 가장 높고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소년소녀가장 학생수가 중·하위권으로 나타나 재정·경제 및 인구 영역은 그다지 양호한 편이 아니었다. 사회·문화 관련 시설 중에서 학원시설과 체육시설은 매우 열악하였으나,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014년 기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구는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생수 관련 환경지수와 시설자원지수, 재정지수 등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4년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허용되어 동구는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기에 투입 영역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양호하게 나타났다.⁶⁾ 이 점은 감안하고 지수 수준을 가늠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바꾸어 말하면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과 특별실 보유 관련 시설자원 측면, 학교재정 등은 모두 매우 양호한 반면, 수업 교사 및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측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하면 교사 구성이 열악하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이고 결과 영역에서는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와 학교재정 측면은 최상위권으로 양호하고,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 측면도 양호한 편이지만, 수업 교사 구성 측면과 특별실 보유 관련 시설자원 측면은 최하위권으로 열악하게 나타났다. 즉, 학급당학생수도 적고, 교원1인당학생수도 적은 편이며, 보건교사나 상담전담교사도 확보되어 있으며, 재정도 양호한 편이지만,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높으며, 체육실, 보건실, 급식실 같은 특별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중학교급에서 수업 교사 구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특별실 같은 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동구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중위권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중간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미달 학생이 타 지역보다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교육과정 영역은 중위권 수준, 결과 영역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지수에서 최상위권 수준을 보인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이나 교사 구성 관련 인적 자원 측면, 시설자원 측면, 학교재정 측면 모두에서 상위권 수준을 보인다. 그런데 과정 영역은 중위권 수준이고, 결과

6) 2015년부터 동구 지역의 교육경비지원이 제한됨에 따라 동구의 교육균형발전지수 순위는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영역은 하위권 수준인데, 학교부적응자나 학업중단자의 비율은 중간 수준이지만, 기초미달자의 비율이나 4년제 대학진학률이 낮은 편이고, 취업 및 미진학자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전문대진학률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구의 경우 과정이나 결과 영역은 별로 양호하지 않지만, 투입 영역이 월등히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고의 경우 투입 영역의 수준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나 결과가 그리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학생 외적인 측면에 자원이 많이 투입 되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역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3> 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투 입	투입 종합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교육 환경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인적자원1	매우 열악	매우 열악	매우 양호
	인적자원2	열악	양호	매우 양호
	시설 자원	매우 양호	매우 열악	매우 양호
	학교 재정	매우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양호
과 정	과정 종합	-	-	보통
	학교 적응	-	-	보통
결 과	결과 종합	-	보통	열악
	학업 성취	-	보통	열악
	학업 중단	-	-	보통
	대학진학 종합	-	-	열악
	전문대 진학	-	-	매우 양호
	4년제대학 진학	-	-	열악
	취업 및 미진학	-	-	열악

따라서 동구의 경우 초·중학교급에서는 교사 구성 관련 인적 자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수업 교사 구성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남구

남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재정·경제 영역에서 하위권이었고, 인구 영역에서도 관련 학령기 인구 비율과 학생수가 인천시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비교적 많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 대비 학원수는 중위권에 속하였다. 즉 남구는 사회문화시설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다소 열악한 편이었다.

2014년 기준 남구 지역은 초·중학교급에서는 중위권 수준이지만, 일반고교급에서는 상위권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는 상위권 수준이고 인적자원지수1은 하위권 수준이며, 이외의 영역들은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 관련 교사 구성이 열악하지만, 나머지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과 복지 관련 교사 구성, 학교재정 측면은 중간 수준 정도이며, 특별실 보유 시설 측면은 양호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하면 수업 관련 교사 구성이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상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하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는 중위권이며 수업 교사 관련 인적자원지수1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복지 관련 교사 구성인 인적자원지수2와 특별실 보유 관련 시설자원지수는 매우 양호하며 학교재정 지수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등은 잘 확보되어 있고 특별실도 잘 확보되어 있으며 학교 재정도 양호한 편이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원1인당학생수 등이 중간 정도 수준이며, 기간제교사 비율은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교육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하위권 수준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 영역 모두에서는 상위권 수준, 특히 과정 영역은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를 제외하면 다른 지수들은 모두 중·상위권 수준이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은 중위권 수준이고, 교사 구성 관련 측면과 학교재정 측면은

모두 상위권 수준을 보인다. 다만,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 측면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반면에 교육의 과정 영역이 최상위권 수준으로 학교부적응자가 적고 더불어 교육의 결과 영역에서도 학업중단지수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학업성취지수도 상위권이어서 기초미달 학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학진학 관련 지수들은 모두 중위권 수준으로 비교적 고른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남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4> 남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보통	보통	양호
투 입	투입 종합	보통	양호	양호
	교육 환경	보통	보통	보통
	인적자원1	열악	열악	양호
	인적자원2	보통	매우 양호	양호
	시설 자원	양호	매우 양호	매우 열악
	학교 재정	보통	양호	양호
과 정	과정 종합	-	-	매우 양호
	학교 적응	-	-	매우 양호
결 과	결과 종합	-	열악	양호
	학업 성취	-	열악	양호
	학업 중단	-	-	매우 양호
	대학진학 종합	-	-	보통
	전문대 진학	-	-	보통
	4년제대학 진학	-	-	보통
	취업 및 미진학	-	-	보통

결국 남구의 경우 초·중·고가 비교적 고르게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일반고교급이 더 양호한 편이다. 다만, 초등학교급에서 수업 교사 구성 측면과 일반고교급에서 특별실 보유 시설 관련 측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4) 연수구

연수구의 경우 재정·경제 영역에서 상위권이었고, 인구 영역에서도 양호한 편이었으나, 사회·문화 시설 중 학원시설을 제외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서 모두 중·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연수구 지역은 초·일반고교급은 하위권, 중학교급은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가 가장 양호하며, 초등학교와 일반고는 비교적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환경 지수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수들은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나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지수, 학교재정지수 등이 모두 중위권 이상인데 비해 신도시 조성으로 학급당학생수가 과밀해져 학급당학생수 및 교원1인당학생수 지표들이 열악하여 교육환경지수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종합 지수가 낮은 것은 이 교육환경지수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하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는 최하위권이며 복지 관련 교사 구성인 인적자원지수2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의 수업 교사 구성인 인적자원지수1과 특별실 보유 관련 시설자원지수, 학교재정지수는 비교적 중·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급당학생수나 교원1인당학생수가 많고, 보건교사나 상담전담교사가 확보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중학교급에서 복지 관련 교사 구성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은 연수구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최상위권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은 중위권 수준이지만, 교육의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역시 학생수 관련 환경지수만 하위권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중·상위권 수준이다. 학급당학생수나 교원1인당학생수는 과밀하여 환경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1은 상위권 수준이고, 특별실 보유 관련 시설자원지수는 최상위

권 수준이며,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지수2와 학교재정지수는 중위권 수준이다. 그런데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부적응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학업중단자 비율은 중간 정도 수준이다. 4년제 대학진학률은 상위권 수준이지만 전문대학진학률은 매우 낮은 편이어서 대학진학지수가 낮은 것으로 산출된다. 취업 및 미진학자의 비율도 높아 이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미달학생의 비율은 아주 낮아 학업성취지수는 최상위권 수준이다. 기초미달자의 비율이 낮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높다는 점은 교육 결과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학교부적응자가 많고, 학업중단자도 꽤 있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든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다.

이상의 연수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5> 연수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열악	양호	열악
투 입	투입 종합	열악	열악	보통
	교육 환경	매우 열악	매우 열악	열악
	인적자원1	보통	양호	양호
	인적자원2	양호	열악	보통
	시설 자원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학교 재정	보통	보통	보통
과 정	과정 종합	-	-	열악
	학교 적응	-	-	열악
결 과	결과 종합	-	매우 양호	열악
	학업 성취	-	매우 양호	매우 양호
	학업 중단	-	-	보통
	대학진학 종합	-	-	열악
	전문대 진학	-	-	매우 열악
	4년제대학 진학	-	-	양호
	취업 및 미진학	-	-	열악

따라서 연수구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는 투입 영역의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의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일반고의 경우 학교부적응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남동구

남동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재정·경제 영역에서 중위권, 학령기 인구 및 학생수 관련 지표들로 이루어진 인구 영역에서도 중위권 수준이었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학원시설과 문화시설에서는 중위권 수준을 보였지만, 도서관과 체육시설에서는 하위권 수준을 보였다. 즉, 남동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8개 자치구 가운데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남동구 지역은 중학교급이 조금 열악하고, 초·일반고교급은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만 상위권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중·하위권 수준이다. 학생수 관련 환경지수와 교사 관련 인적자원지수, 학교재정지수는 하위권 수준이며, 복지관련 교사구성 인적자원지수2는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하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상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은 최상위권 수준인데 비해,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과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은 중위권 수준이며, 학생수 관련 환경지수와 학교재정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구에 이어 두 번째로 기초미달 학생이 적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투입과 과정 영역은 하위권 수준이지만, 교육의 결과 영역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지수는 최상위권이고,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나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1, 학교재정지수는 중위권 수준이지만,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지수2는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표와 달리, 보건교사나 상담교사가 확보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부적응 수준이 하위권인 것과 달리, 결과 영역은 최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자 비율 수준과 유사하게 학업중단자의 비율 수준은 하위

권이지만, 기초미달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고, 4년제 대학진학률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학진학지수가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 및 미진학자 비율도 적은 편이어서 결과 영역의 지수가 종합적으로 최상위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동구의 경우 일반고교급에서는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등 복지 관련 교사를 확보하고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남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6> 남동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보통	열악	보통
투 입	투입 종합	보통	열악	열악
	교육 환경	열악	열악	보통
	인적자원1	열악	매우 양호	보통
	인적자원2	보통	보통	매우 열악
	시설 자원	양호	보통	매우 양호
	학교 재정	열악	열악	보통
과 정	과정 종합	-	-	열악
	학교 적응	-	-	열악
결 과	결과 종합	-	양호	매우 양호
	학업 성취	-	양호	양호
	학업 중단	-	-	열악
	대학진학 종합	-	-	양호
	전문대 진학	-	-	열악
	4년제대학 진학	-	-	매우 양호
	취업 및 미진학	-	-	양호

따라서 남동구의 경우 초등학교급에서는 학교재정 지원을, 중학교급에서는 학생 수 과밀 해소를, 일반고교급에서는 복지 관련 교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부평구

부평구의 재정·경제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다소 열악하였으며,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학령기 장애인 비율이 인천에서 가장 많았고 소년소녀가장 학생 수도 두 번째로 많아 인구 영역에서도 열악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학원시설과 체육시설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도서관과 문화시설은 중·하위권 수준을 나타내었다.

2014년 기준 부평구 지역은 초등학교급과 일반고교급에서는 상위권 수준이고, 중학교급에서는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위권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교재정지수와 시설자원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과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 측면은 모두 상위권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재정이 열악하고, 급식실, 보건실 같은 특별실 보유 학교가 많지 않아 관련 지수가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이나 학교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중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상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는 하위권, 학교재정지수는 최하위권이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상위권 수준이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적 측면과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모두 양호한 편이지만, 초등학교급과 마찬가지로, 특별실 보유 시설 측면과 학교재정 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의 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상위권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나, 중학교급에서 기초미달 학생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투입과 결과 영역은 중위권 수준이지만, 교육의 과정 영역은 상위권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이나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업교사 구성 측면과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 측면, 학교재정 측면은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고교급에서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다는 것

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정 영역은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부적응자 비율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과 영역의 학업중단지수도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기초미달자 비율이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진학 관련 지표들은 중위권 수준인데 취업 및 미진학자 비율이 높지 않아 종합적인 대학진학지수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평구의 경우 투입의 측면에서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지수가 낮다는 점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부평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7> 부평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양호	보통	양호
투 입	투입 종합	양호	보통	보통
	교육 환경	양호	양호	양호
	인적자원1	양호	양호	열악
	인적자원2	매우 양호	양호	양호
	시설 자원	열악	열악	열악
	학교 재정	열악	매우 열악	열악
과 정	과정 종합	-	-	양호
	학교 적응	-	-	양호
결 과	결과 종합	-	양호	보통
	학업 성취	-	양호	보통
	학업 중단	-	-	양호
	대학진학 종합	-	-	양호
	전문대 진학	-	-	보통
	4년제대학 진학	-	-	보통
	취업 및 미진학	-	-	양호

따라서 부평구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는 투입 영역의 시설자원과 학교재정 문제의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일반고의 경우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 계양구

계양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으로 이루어진 재정·경제 영역에서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영역에서는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저조하였지만, 소년소녀가장 학생수와 학령기 장애인 비율이 중위권 수준이었다. 또한 사회·문화 관련 시설 중 학원시설은 상위권 수준을, 나머지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모두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계양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소 양호한 편이었다.

2014년 기준 계양구 지역은 초등학교급에서는 상위권 수준이지만, 중학교급은 하위권 수준이며, 일반고교급은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와 학교재정지수를 제외하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최상·상위권 수준이다.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과 교사 구성 관련 지표들은 모두 양호한 편인데 비해,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 측면은 하위권 수준이고 학교재정은 최하위권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의 지역환경을 고려하면 학교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은 향후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에서는 중위권이지만 결과 영역에서는 하위권 수준이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하위권 수준인 학교재정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와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 특별실 보유 시설자원지수 등이 모두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의 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하위권으로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이 많은 편이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비교적 열악한 편이지만, 이에 비해 교육의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시설자원지수만 최상위권이고, 교육환경지수는 하위권, 복지 관련 교사 구성 인적자원지수2는 중위권 수준이며,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1과 학교재정지수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 비율이 가장 높고 학교재정 또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교급에서

수업 교사 구성 관련 측면이 가장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학교부적응자나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비율은 높으며, 취업자나 미진학자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다만, 기초미달자 비율이 높아 학업성취지수가 낮다는 점은 문제이다. 결국 계양구의 경우 수업 교사 구성과 학교재정, 기초미달자 비율 등에서 열악함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계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8> 계양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양호	열악	보통
투 입	투입 종합	양호	보통	열악
	교육 환경	양호	보통	열악
	인적자원1	매우 양호	보통	매우 열악
	인적자원2	양호	보통	보통
	시설 자원	열악	보통	매우 양호
	학교 재정	매우 열악	열악	매우 열악
과 정	과정 종합	-	-	양호
	학교 적응	-	-	양호
결 과	결과 종합	-	열악	양호
	학업 성취	-	열악	열악
	학업 중단	-	-	양호
	대학진학 종합	-	-	매우 양호
	전문대 진학	-	-	양호
	4년제대학 진학	-	-	양호
	취업 및 미진학	-	-	매우 양호

따라서 계양구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는 투입 영역의 학교재정 측면의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중·고교급의 경우 기초미달자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고의 경우 수업 교사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8) 서구

서구는 재정자립도와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모두 상위권이어서 재정·경제 영역이 매우 양호하였다. 인구 영역에서는 학령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령기 장애인 비율이 가장 적은 편이었지만, 소년소녀가장 학생수가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영역에서는 도서관이 최하위권에 해당하였고, 이외의 학원시설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서구 지역은 초·일반고교급은 하위권 수준이고 중학교급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학교재정지수는 상위권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나 수업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지수와 시설자원지수는 중위권 수준이고,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지수와 복지관련 교사구성 인적자원지수2는 하위권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재정은 양호하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원1인당학생수 측면과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확보 측면에서는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구의 경우에도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학생 과밀의 문제와 상담 및 보건 교사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의 투입과 결과 영역에서 모두 최하위권 수준을 나타내었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모든 지표가 다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한 지표도 양호한 것이 없어 종합한 결과 교육의 투입 영역지수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의 결과 영역을 살펴보면, 기초미달자 비율이 높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중학교급에서 기초미달 학생이 타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고등학교급에서의 학업성취와 진학에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교육의 과정 영역이나 결과 영역에서는 중위권 수준을 보여주었다. 먼저, 교육투입 영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지수1을 제외하면 다른 지수들은 모두 하위권 수준이고, 교육환경 지수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즉, 학생수 관련 환경 측면이나 시설자원 측면, 학교재정, 복지관련 교사구성 측면 모두에서 하위권 수준을 보인다. 다만, 수업교사 구성 관련 측면이 그래도 중위권 수준이라는 점에서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하위권 수준인 투입 영역과 달리,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은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학교부적응자 비율은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학업중단자가 많은 편이다. 즉, 부적응 이외의 다른 사유로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이다. 4년제 대학진학보다는 전문대학 진학 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대학진학종합지수는 중위권 수준이며, 기초미달자 비율도 중위권 수준이다. 결국 서구의 경우 투입 영역의 지표들인 초·중·고 모두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서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를 영역별, 학교급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9> 서구 지역 교육격차 실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종합		열악	매우 열악	열악
투 입	투입 종합	열악	매우 열악	매우 열악
	교육 환경	열악	열악	매우 열악
	인적자원1	보통	보통	보통
	인적자원2	열악	열악	열악
	시설 자원	보통	열악	열악
	학교 재정	양호	보통	열악
과 정	과정 종합	-	-	보통
	학교 적응	-	-	보통
결 과	결과 종합	-	매우 열악	보통
	학업 성취	-	매우 열악	보통
	학업 중단	-	-	열악
	대학진학 종합	-	-	보통
	전문대 진학	-	-	양호
	4년제대학 진학	-	-	열악
	취업 및 미진학	-	-	보통

따라서 서구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투입 영역의 학생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의 개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며, 중학교급의 경우 기초미달자 비율을 줄이며, 일반고교급의 경우 학업중단자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시설과 재정의 열악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과 연구 한계

인천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의 실태를 선정한 지표를 통해 지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교육의 투입 영역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특히 고등학교급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과 영역보다 투입 영역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애초 모든 학교에 균형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는 학교재정 측면과 인적자원 측면의 지역간 격차가 크고, 일반고교급에서는 학생수 및 교사수 관련 교육환경 측과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재정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교육경비와 교육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 때문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으므로, 학교재정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굳이 재정의 균형을 제언하지 않는다. 따라서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는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 측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고등학교급에서는 학생수 및 교사수 관련 교육환경 측면과 교사 구성 관련 인적자원 측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지역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교육격차와 이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0>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도출

대영역 (Index)	소영역 (Sub-Index)	주요 교육격차	정책 도출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문화	사회·문화 시설 격차	사회·문화 시설 확충
교육의 투입 영역	교육 환경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격차	적정 규모 학급 및 학교 운영
	인적 자원	수업 관련 인적자원 격차	기간제교사 비율 축소 노력
		교육복지 관련 인적자원 격차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확보
시설 자원	학교시설 격차	필수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의 과정 및 결과 영역	학교 적응	학업부적응과 학업중단 학생 비율 격차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학업 중단		
교육의 결과 영역	학업 성취	학업성취(기초학력) 격차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책무성 제고

1.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1) 사회·문화 시설 확충

사회문화적 배경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구와 중구는 비교적 사회문화시설이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 학원수만 많은 연수구의 경우 다른 문화시설은 열악한 편이어서 확충이 필요하며, 남동구의 경우에도 인구 대비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인구수에 적절한 사회문화시설 특히, 도서관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사회·문화 시설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구와 남동구는 도서관 확충에, 부평구와 연수구는 문화시설 확충에, 동구와 남동구는 체육시설 확충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 적정 규모 학급 및 학교 운영

지역간 학급당학생수나 교원1인당학생수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지역간 인구밀도나 학령인구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학생수에 적절하게 학교를 배치하지 않거나 교사수를 균등하게 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수 및 학급수에 비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을 운영하게 되고, 교원1인당학생수도 많게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학교수 및 학급수에 비해 학생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과소학급을 운영하게 되고 교원1인당학생수도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간 적정 규모의 학급 및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과밀문제 및 과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규모의 학급 및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과밀한 지역에는 학교신설이, 과소한 지역에는 이전·재배치가 필요하다. 특히, 연수구와 서구는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과밀한 편이며, 남동구의 경우 중학교급에서 과밀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신설 혹은 학급증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적정 규모의 학급 및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기간제교사 비율 축소 노력

공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효과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천순 외, 2011; 조현국, 2013; 최형재, 2014)를 고려해 보면,⁷⁾ 각급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시 휴직교원에 대한 대체교사로의 기간제교사 활용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학교급에서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낮은 지역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에서 학업성취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일반고교급에서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 계양구에서 학업성취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기간제교사 비율이 낮은 지역 연수구와 남구에서는 학업성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초·중학교급에서는 동구가 가장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고, 남구도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학교급에서는 기간제교사 비율을 축소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4)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 확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학교에는 보건교사와 상담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건교사의 배치는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배치율에 지역간 격차가 있다는 것은 교육복지의 지역간 격차가 있다는 뜻이다. 건강 관련 교육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의 배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구 지역의 경우 지역환경도 그리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기에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연수구의 중학교급과 남동구의 고등학교급에서도 보건교사와 상담교사의 배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선행연구들에서는 기간제교사의 효과가 부정적인 원인으로, 기간제교사들이 지닌 불리한 특성(교사로서의 경험 부족, 고용불안정성으로 인한 수업 준비 및 개발 집중 부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등)을 지적하고 있다.

5) 필수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 내에 특별실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다. 체육시설, 영어교실 등은 교과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건강을 돌보고 사고 발생시 처치할 수 있는 보건실도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이다. 학교 급식도 공부하는 교실보다는 식사 전용 식당에서 먹는 것이 더 위생적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적인 시설은 모든 학교가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 시설 확보에 지역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불필요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 시설은 지역간 차이 없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구와 남동구는 초등학교급에서 이러한 시설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남구와 서구는 고등학교급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부평구는 모든 학교급에서 부족한 편이므로 이러한 필수 시설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6)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등학교급에서 학업중단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곧 성인으로서 사회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이다. 더구나 질병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더욱 문제시 된다. 따라서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 시 해소해 줄 수 있는 다각도의 방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거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친밀하거나 대안교실이나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안내가 잘 된다면, 개인 맞춤형 진로지도와 안내가 잘 된다면 하는 것이다. 최근 학업중단숙려제도 시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담 체계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세심한 돌봄과 원만한 교우관계 조성, 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업부적응과 학업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교책임성 제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어도 기초학력은 학교에서 획득해야 한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기초미달 학생들에게 보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의 결과에서 비교한 학업성취지수에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학교가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획득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급의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남구, 계양구, 서구 지역과 고등학교급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중구, 계양구 지역에서는 기초학력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수 연구의 한계

본 교육격차 연구는 지수화에 의한 지역간 학교급별 비교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학교별 격차나 원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여러 지표들을 지수화 할 때 일부 지표나 학교의 격차가 희석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지수화를 통한 비교의 경우 보다 거시적인 비교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활용가능한 변인들이 모두 객관적 수치로 산출가능한 것들이므로,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정성적 변인들은 고려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수화에 의한 비교 연구는 학생 개인의 능력을 비롯한 여러 변인과 교육의 질을 비교하지 못한 채 객관적으로 양화가능한 변인들만 비교한 것이므로, 주로 교육의 여건 격차나 교육의 결과 격차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결과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변인)이 교육의 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도 추론 가능하듯이, 교육의 과정과 학생 개인의 변인이 교육의 결과 격차를 초래하는 더 중요한 변인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비교해 보는 것은 출발점인 교육여건에서부터 지역간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여건이 거주지별로 차별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학생 개인 변인이나 교육의 과정 변인들보다 지역사회가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의 격차 연구는 여전히 필요한 연구이다. 향후에는 지수화가 가능한 교육지표들이 더 많이 수집되고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도 많이 개발되어 교육격차 후속 연구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강영혜 외(2004),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태중(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 차이 분석-인구 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 청소년연구원.
- 고형일 외(2005),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2000),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권 3호(pp.1-23).
- 김경근(1999),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권1호 (pp.21-40).
- 김병성(2003), 우등생과 열등생 차이, 그 오래된 의문점: 교육격차의 의미·배경·인과론, 교육개발 제139호(pp.20-25).
- 김영철(2003), 서울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재형 외(200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제3판), 한국개발연구원.
- 김창규·김영노(2012), 교육균형발전지수를 통한 대전광역시 지역간 교육격차감소 방안 연구, 대전교육연구소.
- 김창환 외(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Ⅲ): 대학생역량지수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환 외(2012),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 교육정의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외(2006),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및 격차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필 외(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배은주(2012), 인천광역시 교육격차 실태 및 해소 방안: 국가수준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변수용·김경근(2006), 한국사회에서의 학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권4호(pp. 1-27).
- 보건복지부(2015),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015), 장애인 등록현황(2014년 12월 말).
- 서지영(2010), 대구 군·구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성열관 외(2005),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방안 및 법안,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
- 송재복·안병철(2005), 지역간 낙후도 연구: 낙후도 지표개발 및 지수산출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3호(pp.33-56).
- 양정호(2006), 학업성취에 대한 수준별 수업의 효과: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 제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pp.3-20), 한국교육개발원.
- 오성배(2004), 지역간 학업성취도 격차 원인 분석: 지역 효과와 학생이동의 영향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우명숙(2013), 서울시 중학교의 단위학교 및 자치구 수준에서의 교육격차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4호(pp.55-83).
- 이광현(2007),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 방법론 검토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1호(pp.1-24).
- 인천광역시(2015), 2014 인천통계연보.
- 인천광역시(2015), 2015 인천통계연보.
- 임선희·김경희(2006), 대전의 동서지역 교육격차실태와 해소방안,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3호(pp.189-210).
- 임천순·고장완·김진영·이광현·이수정(2011), 교육개정과 학교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4호(pp.171-188).
- 정대연(2004), 사회통계학, 제주대학교출판부.
- 정택희 외(2008), 한국의 교육지수 개발 연구: 학교교육성과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조현국(2013), 학교유형별 기간제교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학연구 61권 2호(pp.5-29).
- 최형재(2014),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자료를 이용한 기간제교사의 효과분석: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32권 2호(pp.5-36).
- 추경모(2012), 교육의 지역적 격차에 관한 연구: 중학교 교육현황을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1권 1호(pp.33-51).
- 하봉운(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pp.167-193).
- 하봉운(2004), 경기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경기논단 2004년 겨울호(pp.61-90).

- Bernstein, B.(1973).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In *Class, codes and control Vol. 2*, London: Routledge.
- Bourdieu, P.(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R. Brown, *Knowledge,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London:
Tavistock.
- Brookover, W. et al.(1979). *School social system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s*, New York: J. F.
Bergin Publishers, Inc.
- Colman, J.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iMaggio, P. & Mohr, J.(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0* (pp.1231-1261).
- Hauser, R.M., W.H. Sewell & D.F. Alwin(1976). “High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309-342. New York: Academic Press.
- Jencks, C. et al.(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Rutter, M. et al.(1979).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홈페이지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미추홀도서관 <http://www.michuholib.go.kr/incheon/map.jsp>
 인천교육통계 <http://www.ice.go.kr/openintro/static.asp>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통계, 주민등록인구
<http://www.incheon.go.kr/icweb/html/web1/001005002002001.html>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i.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ibang_03.jsp

e-지방지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0000&conn_path=I2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IDI연구보고서 2015-07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분석
:인천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발행인 남기명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TEL 032) 260-2600

FAX 032) 260-2629

<http://www.idi.re.kr>

인쇄소 청송출판인쇄사 (032-883-4437)

© 인천발전연구원 2015

ISBN 978-89-5678-541-7 9337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